

WINTER+SPRING 2011

CONTENTS

대한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진길남 회장	MESSAGE 02
회원들에게 보내는 Fighting 2011	LETTER 04
소아혈뇨의 감별 진단	STUDY ① 06
비뇨기과 영역에서 홀뮬레이저의 사용	STUDY ② 09
토마토의 섭취가 전립선암 위험에 미치는 효과	STUDY ③ 14
2010년 대한비뇨기과 개원의협의회 추계학술대회 이모저모	STUDY ④ 16
권순생 원장의 Art Gallery, 어떤 바블이기를 원하세요?	GALLERY 18
연합비뇨기과 윤율로 원장, 음악은 나의 인생	HOBBY ① 22
포항 화인비뇨기과 이재원 원장, 지역사랑 실천하는 문화애호가	HOBBY ② 26
강남자이병원 김진홍 원장, 마음 속 고향, 세르비아!	TRAVEL ① 20
13th Congress of the European Society for Sexual Medicine 참관, 나의 스페인 가족여행	TRAVEL ② 34
가족과 함께 즐기는 농촌체험여행, Natural Country Side	WEEKEND 36
내 손 안의 세상이 열린다, Smart World	TREND 42
가족애로 뭉친 비뇨기과 경기 남부모임	COMMUNICATION 45
대한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News	NEWS 46
독자이벤트	EVENT/LETTER 48

발행인 _ 진길남

발행일 _ 2011년 3월

간행위원 _ 이종진, 정도린, 이상린, 서경근, 두진경
김성은, 방은주

발행처 _ 대한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전화 02-6257-5700 / 팩스 0505-507-5700

편집 및 제작 _ KC&C(02-2263-4212~4)



새로운 1년을 밝히는 해가 떠오른 날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2011년을 맞이하고도 몇 날이 흘렀습니다.

존경하는 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회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 무탈하게 지내고 계신지요.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개원가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많은 회원들이 고통 받았던 한 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들의 입지는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경영상의 어려움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다양한 정책 변화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 무엇보다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부 결속과 다양한 정보 교환입니다.

새해 회보를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니 새롭고 설레는 마음입니다. 이번호에는 회원들 사이에 일어난 소소한 에피소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학술정보 그리고 문화적 감성을 채워 줄 풍성한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회보를 통해 학술 정보를 나누고, 즐거운 일에 같이 미소 짓고, 많은 회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열리길 바랍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보에 관심을 갖고 읽어 주실 여러분의 애정일 것입니다.

2011년에도 집행부는 회원 여러분들과 더욱 다양한 정보를 나누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2011년은 신묘년(辛卯年), 민첩하고 영리한 토끼의 해입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고충을 가까이서 귀 기울여 듣고, 함께 소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모두들 신년계획 하나쯤은 세우셨겠지요? 집행부는 그 소중한 희망에 동반할 수 있도록 더 가까이 다가설 것을 다짐하며 인사를 대신합니다.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대로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제8대 대한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회장 진길남



2011 대한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춘계학술대회

일 시

2011년 3월 27일(일) 09:00~17:50

장 소

JW메리어트호텔 5층 그랜드볼룸

PROGRAM

09:00-09:10		진길남 회장	14:00-14:30	ED and BPH	좌장: 정병동 부회장
09:10-10:00	Viral STI	좌장: 심봉식 회장(대한요로감염학회)		-Safety&efficacy of combination therapy with Mx(Miracdenafil) and α 1-blocker for ED concomitant with BPH	이승욱 교수(한양대의대)
	-Human papilloma virus (HPV) vaccination	남종길 교수(부산의대)	14:30-14:50	Coffee Break	
	-Practical management of genital warts	정재민 교수(고신대의대)	14:50-16:20	Urogenital US	좌장: 이철호 지회장
10:00-10:20	Coffee Break			-Basics and Scrotal USG	오영택 교수(연세의대 영상학과)
10:20-11:00	축사 및 특강(Noduria)	좌장: 정문기 회장(대한비뇨기과학회)		-Abdomen USG: Kidney, Bladder and Liver	정대철 교수(연세의대 영상학과)
	Pharmacological management of nocturia: thinking beyond bladder	이규성 교수(성균관대의대)		-Transrectal USG	정경우 원장
11:00-13:00	배뇨장애요실금 분야에서의 개원가 진료(증례를 중심으로)		16:20-17:20	Anesthesia for urogenital surgery	좌장: 우중철 부회장
	좌장: 김덕운 회장(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이유식 학술이사			-Spinal and caudal anesthesia in urologic private clinic: tips and tricks	최현 교수(서울의대 마취과)
	-남성 배뇨장애의 진단과 치료	주명수 교수(울산의대)		-IV and local anesthesia in urologic private clinic: tips and tricks	안원식 교수(서울의대 마취과)
	-여성 배뇨장애의 진단과 치료	김준철 교수(가톨릭대의대)	17:20-17:50	Tips and Tricks	좌장: 이윤수 지회장
	-복합성 요실금의 새로운 수술: tip and tricks	최종보 교수(아주의대)		-Glans augmentation: direct incision and graft	이민중 원장
	*패널: 소민우 원장, 정병수 학술이사				
13:00-14:00	Luncheon lecture	좌장: 임일성 부회장			
	-Recent Update in LUTS/BPH: aspect of 5-ARI	이지열 교수(가톨릭대의대)			

사전등록 안내

- 사전등록 기간: 2011년 3월 21일(월) 18:00까지
- 사전등록은 학술대회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3월 21일(월) 이후의 등록은 학술대회 현장 접수처에서 당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사전등록 방법

- ① 사전등록은 학회 홈페이지에서 등록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화 또는 팩스로도 사전등록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urosociety.com>
-TEL. 02) 704-8574 / FAX. 02) 704-8573
- ② 학술대회 등록비
사전등록비 : 30,000원
현장등록비 : 50,000원

- ③ 입금처
국민은행 081101-04-103914
(예금주: 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 ④ 문의처
대한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학술대회 준비사무국
TEL. 02) 704-8574
FAX. 02) 704-8573
E-MAIL. app@app2010.com

※ 학술대회 당일 11시~3시까지 무료로 법률, 노무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한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회원들에게 보내는

Fighting 2011

정병동 부회장 (정비뇨기과)



2011년 신묘년입니다. 대한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회원님과 가족 모두에게 먼저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회원님들의 사랑과 협조로 대한비뇨기과 개원의 협의회가 발전하였을

을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以同求異 以異求同(공통점을 바탕으로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인정하고 협력한다) 마음으로 대한비뇨기과 개원의 협의회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으면 합니다. 즐거워서만 웃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웃다보면 즐거워지고, 日新月盛하시길 바라오며, 늘 건강하시길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권길성 부회장 (권길성비뇨기과)



신묘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비뇨기과개원협의회 회원 여러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개원가의 경영여건이 나날이 악화되어 비뇨기과 전공의 자원을 대폭감소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는 보다 멀리 내다보는 안목으로 양보하고 단합하며 협조하여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는데 우리 모두 노력합니다.

원현철 부회장 (원피부비뇨기과)



지금까지 오는데 많은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회원 모든 분들의 참여와 성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임승현 부회장 (임승현비뇨기과)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건강이다'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새해엔 운동을 더욱 열심히 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임일성 부회장 (임피부비뇨기과)



토끼해가 열렸습니다. 토끼가 먹을 풀은 반쯤 말라있고, 그마저도 많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말자고 말해야 속이 안 풀립니다. 비개협이 있어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고, 비개협이 뭔가 행복하게 해주리라 반기면서 후배들이 가슴을 여는 날, 들풀을 먹어도 참된 마음으로, 매일 찾아오는 환자에게 웃음을 건네주고 싶습니다.

조찬홍 부회장 (조찬홍비뇨기과)



'하면 된다'라는 긍정적인 사고와 도전정신으로 각자의 소망을 이루는 신묘년 한 해가 되시길.

우종철 부회장 (우비뇨기과)



신묘년 토끼해를 맞이하여 우리 비개협도 토끼처럼 계속 전진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윤수 서울시 지회장 (이윤수비노기과)



토끼(조루)를 거북이로 만드는 신기한 능력을 가진 비노기과 동료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날로 어려워지는 의료 환경 속에서 남 탓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학술대회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다른 과 공부도 많이 하고 환자 많이 보십시오. 본인은 또 다른 대박(?)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조만간에 새로운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경기도 지회장 (김남국비노기과)



어려운 시기에 토끼의 신묘한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경우 부산시 지회장 (스마일 정경우비노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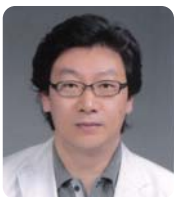
회원 여러분! 2011년은 토끼와 같이 꺾충뽕 충 뛰어서 많이 발전하셔요. 사랑합니다.

이철호 충청남도 지회장 (이철호비노기과)



위기는 바로 기회입니다. 금년 한해는 비노기과의 중흥이라는 큰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신묘한 해법이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종각 경상북도/대구시 지회장 (박종각비노기과)



비노기과 개원 회원 여러분!! 신묘년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 순조롭게 풀리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과 병원에 만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류연길 전라남도 지회장 (류비노기과)



지혜로운 토끼가 굴을 세 개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는 '교토 삼굴 고사성어'를 생각해보며, 지혜를 발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비노기과 회원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바랍니다.

오길현 전라북도 지회장 (코아비노기과)



구제역, 조류독감, 신종플루, 강추위, 척박한 의료환경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비노기과 개원의 여러분의 신묘년에는 근심, 걱정 모두 잊고 늘 건강과 평안함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김남두 강원도 지회장 (김남두피부비노기과)



동양철학의 백미인 <주역>의 핵심 내용은 '세상의 만물은 변한다'입니다. 세상의 운세를 볼때 제일 위의 꼭지점에 있는 운세도 좋지 않은 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려올 일만 남았으니까요. 비노기과 개원 의들의 시련이 한겨울 추위만큼 시리지만 기다리면 다시 변화가 오겠지요? 최선을 다하고 기다려 봅시다.

방진성 제주도 지회장 (방비노기과)



신묘년을 맞이하여 우리 비노기과 모두에게 밝은 희망을...



소아혈뇨의 감별진단



글 백민기(성균관대의대 삼성서울병원 비뇨기과)

1. 혈뇨의 정의와 종류

혈뇨는 육안적 혈뇨와 현미경적 혈뇨로 구분된다. 육안적 혈뇨는 소변 색깔이 선홍색 혹은 적갈색을 띠고 출현이 심하면 핏덩어리가 동시에 관찰된다. 하지만 실제 출현이 있는 경우 이외에도 혈뇨와 유사한 색깔을 띠는 경우가 있는데, 소변이 매우 농축되었거나 beets, aminopyrine, phenytoin, urate, rifampin 등과 같은 약물 혹은 음식을 섭취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최근 초등학교에서 신장 질환에 대한 선별 검사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dipstick을 이용한 잠현 반응 검사는 pseudoperoxidase 반응을 이용하여 hemoglobin을 검출하는 것이므로 free hemoglobin, myoglobin 등 다른 oxydizing agent에 의해 위양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dipstick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모든 환아는 현미경을 통한 소변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현미경적 혈뇨는 소변을 원심 분리한 후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현미경하 고배율당 5개 이상의 적혈구가 관찰될 때 현미경적 혈뇨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정의한다. 하지만 현미경적 혈뇨는 일과성일 수 있어 최

소한 2-3주에 걸쳐 2-3회 이상의 추가적 검사에서도 지속적으로 현미경적 혈뇨가 관찰될 때 원인을 찾는 검사를 권한다. 만약 일과성 혈뇨로 소실되면 더 이상의 추적 관찰이 필요하지 않다.

2. 발생빈도 및 유병률

현미경적 혈뇨는 진단 기준에 따라 다양한 보고가 있으나 학령기(6-15세)에서 2회 이상의 소변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할 때 1-2%의 발생빈도를 보이며, 기간과 검사 횟수를 4회-5회로 늘리면 0.2-0.4%로 낮아진다. 한편 육안적 혈뇨의 발생빈도는 0.13%로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된다.

3. 병태생리

혈뇨는사구체, 신세뇨관 및 간질 등 신실질에서 유래하는 경우와 신우, 요관 방광 및 요도 등 요로계에서 유래하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며 전신질환의 한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육안적 혈뇨와 현미경적 혈뇨는 동반될 수도 있지만 독립적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감

별 질환에서 차이가 나고, 증상 유무에 따라서도 감별 질환에 차이를 보이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4. 감별 과정 및 평가

1) 병력

최근의 손상, 과격한 운동, 요로계 처치 등은 일시적 혈뇨를 일으킬 수 있다. 약물 혹은 독성 물질의 섭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겠다. 혈뇨, 청각장애, 고혈압 외에도 신장 질환 혹은 관련 병력과 가족력을 자세히 문진하는 것이 감별 진단에 도움이 된다. 요로감염 혹은 결석질환과 관련하여 배뇨증상, 측복부 통증 유무가 감별에 도움이 되고 감염 후 사구체신염과 관련하여 최근 2-4주 이전 sore throat 혹은 피부 염증 등 병력은 감별에 중요한 착안점이다.

2) 신체검사

고혈압이 동반된 혈뇨는 가급적 신속히 집중적인 검사가 필요하지만, 혈압이 정상이면서 현미경적 혈뇨만 있는 경우 긴급한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 육안적 혈뇨와 단백뇨가 동반될 때 사구체신염을 의심할 수 있다. 혈뇨에서 고열과 측복부 통증이 동반되면 요로감염(신우신염)을 의심할 수 있으며 중물이 축적되면 종양, 수신증, 낭성신질환에 대한 감별이 필요하다. 혈뇨와 동반된 부종이 있으면 신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고, 피부 rash와 관절염이 동반될 때 Henoch-Schonlein purpura를 우선 감별하여야 한다.

3) 검사실 검사

육안적 혈뇨를 보일 경우 소변배양검사 및 신장초음파검사를 권한다. 혈뇨가 있을 때 dipstick을 이용한 소변검사에서 혈뇨에 자체에 의해 단백뇨가 양성으로 나올 수 있지만 대개 $2+(100\text{mg/dL})$ 를 초과하지 않으며 소아에서 현미경적 혈뇨만 있는 경우 특히 그렇다. 따

라서 혈뇨가 있고 2+이상의 단백뇨가 있을 경우 사구체신장염 혹은 신증후군 등 신장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 RBC cast가 보일 경우 사구체신염의 중요한 specific marker로 간주되나 RBC cast 음성이라고 해서 사구체 질환을 배제할 수는 없다. Dysmorphic RBC의 검사로 사구체 유래성 혈뇨를 진단하는데 도움이 되나 기준의 범위가 5% 이상부터 70-80% 이상까지 다양하고 소변의 osmolality, specific gravity 등 상태에 따라 위음성 가능성이 있어 진단적 의미는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된다.

5. 혈뇨 종류에 따른 평가

1) 무증상 지속적 현미경적 혈뇨

주로 무증상 현미경적 혈뇨 단독적 문제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원인을 평가해 보면 원인 불명, 가족성, IgA 신증 등이 비교적 흔하고 손상, 운동, 결석, 감염 후 사구체신염을 비롯한 각종 신우신염, Alport nephritis 외에 Henoch-Schonlein purpura 등 전신질환과 동반한 문제 혹은 출혈을 일으키는 약물 복용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약물에는 아스피린, 항응고제, cyclophosphamide, amitriptylene, chlorpromazine, ritonavir, indinavir, toluene 등이 대표적이다. 무증상 현미경적 혈뇨를 보이지만 신기능이 정상이고 고혈압, 단백뇨, RBC cast 등이 없을 때는 3개월-1년에 한 번씩만 소변검사 및 혈압 측정만 해도 무방하다고 하는 주장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신장 및 방광 초음파검사는 비침습적 검사로 추가적 선별 검사로 흔히 이용된다. 요로계조영검사(IVP)는 초음파로 거의 대체되어 시행되지만 경우에 따라 요로계 내부의 병변을 확인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된다. 만약 소변에서 단백뇨가 $4\text{mg/m}^2/\text{hr}$ 혹은 $\text{protein/creatinine}$ 치가

0.2 이상일 경우 신장전문 의사에게 의뢰하여 자세한 검사를 받도록 할 것을 권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환자에서 혈뇨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원인불명인 경우가 가장 흔하다.

2) 증상을 동반한 지속적 현미경적 혈뇨

배뇨통, 급박뇨, 빈뇨 혹은 요실금 등 배뇨증상은 요로감염을 시사하는 증상이며 배뇨곤란, 세뇨, 단절성 배뇨, 요점적 등은 하부요로 폐색성 질환을 시사한다. 측복부 통증 동반 시 요로 결석, 신우요관이행부폐색증, 방광요관역류 등이 우선적 감별 질환이다. 최근 상기도감염(감기)의 병력이 있을 경우 신실질 질환 특히 IgA 신증 등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최근 심한 운동 후 발생한 혈뇨는 운동관련 혈뇨를 시사하는데 2-3일 정도 휴식하여 혈뇨가 소실되면 더 이상의 평가는 필요하지 않다. 고혈압은 신실질 질환에서 흔히 동반되며 신체검사상 피부, 복부 및 요도구등도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3) 육안적 혈뇨

소아에서 육안적 혈뇨의 가장 흔한 원인은 요로감염으로 약 26%를 차지한다. 따라서 요배양 검사 및 신장방광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 감염의 원인은 세균성인 경우도 있지만 adenovirus 등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정확한 기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과칼슘뇨증은 현미경적 혈뇨 혹은 간헐적 육안적 혈뇨의 원인이 된다. 소변에서 calcium/creatinine치를 측정하여 0.21 이상이면 과칼슘뇨증을 의심할 수 있고 24시간뇨를 모아 칼슘이4mg/kg/day 이상으로 측정되면 과칼슘뇨증 진단 하에 수분섭취 권장 및 저염식을 권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hydrochlorothiazide 복용을 권한다. 단백뇨, RBC cast 등이 있어 신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CBC, electrolyte, BUN, creatinine, ASO, ANA, C3, C4 등 추가적 평가 및 선택적으로

신장조직 검사가 필요할 수 있어 신장전문 의사에 의뢰하는 것이 좋다. 요로감염이 확인되거나 혹은 초음파 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배뇨증방광요도조영술(VCUG)이 필요하다. 그 이후IVP, CT, MRI 혹은 renal scan 등 검사는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방광요도 내시경검사는 무증상 현미경적 혈뇨에서 시행되지 않으며 증상이 있더라도 초음파 검사 등 다른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시행하지 않는다. 다만 육안적 혈뇨가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 방광요도 내시경검사가 시행되는데 가능한 출혈이 있는 시기에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드물게 혈관조영검사가 필요할 수 있으나 선택적으로 필요한 경우 적용된다.

출처 MDfaculty(www.mdfaculty.co.kr)

참고문헌

1. Canning DA:Evaluation of the pediatric urologic patient. In: Walsh PC, Retik AB, Vaughan ED Jr, Wein AJ(eds), Campbell's Urology, 8th edition, Philadelphia: WB Saunders Co, 1812-28, 2002.
2. Dillon MJ:Parenchymal renal disease, hematuria, renal hypertension. In:O'Donnell B, Koff SA(eds.), 3rd ed., Pediatric Urology, Butterworth Heinemann, 253-4, 1997.
3. Meyer KEC: Evaluation of hematuria in children. Urol Clin N Am 31:559-72, 2004.
4. Skoog SJ, Scherz HC:Office pediatric urology. In: Gillenwater JY, Howards SS, Mitchell ME (eds.), 4th Ed., Adult and Pediatric Urology, Lippincott Williams&Wilkins, Philadelphia, 2679-81, 2002.

비뇨기과 영역에서 홀뮴레이저의 사용

글 한병규, 문기혁(퍼펙트비뇨기과의원 원장)



어린 시절 공상과학영화에서 나오던 레이저가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절이 되었다. 학회발표나 강의를 할 때 화면의 한 부분을 가리키는 데 쓰는 레이저포인터가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빛은 광원으로부터 다양한 파장이 혼재하여 존재하지만, 레이저는 파장이 일정하고 결이 맞는 빛만을 방출한다. 즉 태양광은 프리즘을 통과하면 7가지 무지개 색으로 갈라지지만 레이저는 특이하게도 단색만 나타내게 된다. 레이저(Laser)란 용어는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의 머리글자를 모아 만들어진 용어로 이를 굳이 해석하자면 유도방출복사에 의한 빛의 증폭이라고 할 수 있다. 레이저빔(Beam)은 세기가 강하고 한 가지 색을 띠며, 지름의 변화가 거의 없이 멀리까지 전달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레이저는 에너지의 집중도가 뛰어나 태양 빛을 모으면 종이나 나무를 태울 수 있는 정도지만, 레이저빔을 모으면 금속을 자를 뿐 아니라 핵융합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레이저는 화려한 홀로그램에서부터 반도체 생산, 광통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분야에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레이저가 의료 장비로 각광을 받고 있어 인체 장기의 일부분을 지혈과 함께 절개한다거나, 인과수술에서 망막과 같은 예민한 부분을 섬세하게 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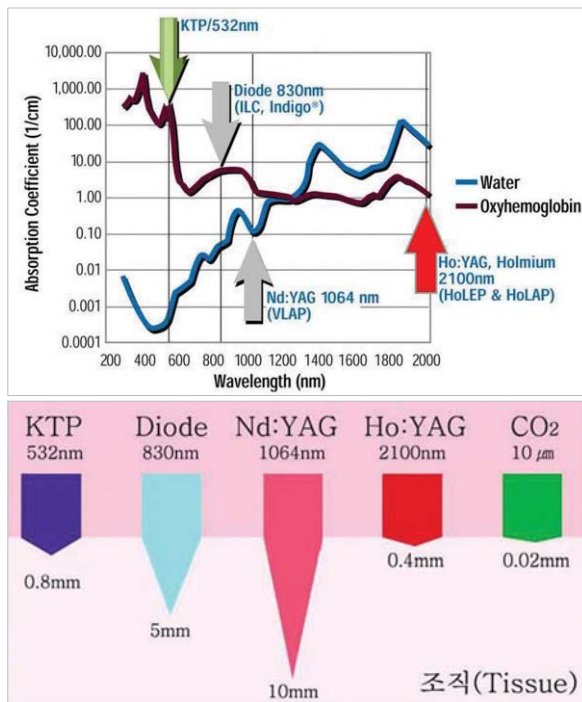


홀뮴레이저 장비와 다양한 구경의 레이저 fiber, 홀뮴레이저 fiber는 비교적 얇은 편이며 쉽게 휘어져서로 연성내시경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end-fire fiber의 경우 매 수술 시 끝에서부터 조금씩 잘라내고 사용하게 된다. 우측 하단의 사진은 필자가 홀쥔 수술에서 사용하는 조직분쇄기(morcillator)이다.

야 하는 수술, 추간판 디스크나 결석 등을 제거하는 등 종류만큼이나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다양한 레이저 중에서도 필자는 본 지면을 통해 비뇨기과 영역에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홀뮴레이저(Holmium:YAG Laser)와 이를 이용한 비뇨기과 영역의 수술을 소개하고자 한다.

홀뮴레이저의 특성

홀뮴레이저(Ho:YAG Laser, Holmium:yttrium-aluminum-garnet Laser)는 CO₂ 레이저의 절개 효과와 Nd:YAG 레이저의 응고 효과를 겸비한 2,100nm의 파장의 레이저로 지속적으로 방출되지 않고 간헐적으로 방출되는 펄스 방식으로 작동한다. Ho:YAG 레이저의 가장 큰 특징은 색상에 관계없이 에너지가 전달되고, 침투 깊이(Penetration Depth)가 0.4mm에 불과하며, 물에 잘 흡수되므로 수증 환경에서 조직이 레이저 fiber와 1cm 이상 떨어지게 되면 영향이 거의 미미하다. 또한 홀뮴레이저는 3-100Watt의 다양한 출력을 낼 수 있고, 고출력에서는 조직의 기화 효과도 나타낼 수 있다. 홀뮴레이저는 수술자의 시야 범위 이외의 예상치 못한 조직 손상은 거의 없어 관류액과 내시경을 이용하는 내비뇨기수술에 가장 적합한 레이저로 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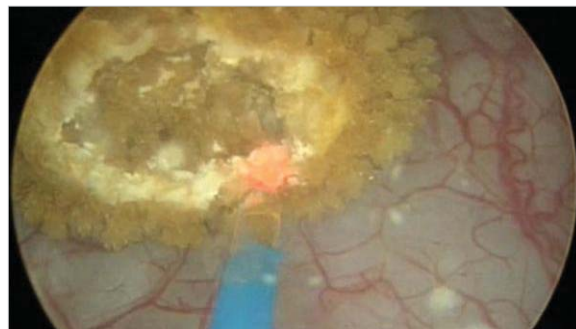
레이저의 파장과종류에 따른 흡수 정도 비교. 홀뮴레이저는 물에 흡수가 많이 되는 편이며 조직내 침투 깊이는 매우 얕다

관류액이 홀뮴레이저를 많이 흡수하게 되므로 레이저 Fiber와 조직이 닿을 정도로 접촉시켜야 효과를 나타내며,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 내 성분 중 물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홀뮴레이저 에너지의 대부분은 조직의 표면에서만 작용하게 되어 우수한 절개 효과와 더불어 뛰어난 안전성도 발휘할 수 있다. 홀뮴레이저는 조직 기화 시 열 손상의 범위가 0.5-1.0mm이기 때문에 직경 1mm의 혈관의 효과적인 지혈이 가능하며, 술자가 원하는 만큼 절개하고, 눈에 보이는 정도의 조직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홀뮴레이저를 이용한 요로 결석의 내시경 수술

최근에는 내시경 장비와 술기의 발달로 거의 모든 종류의 요로 결석에 내시경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초음파나 기압, 전기수압과 등 다양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체내 쇄석 장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홀뮴레이저는 광열효과(Photothermal Mechanism)로 기화화 함께 거의 모든 성분의 요로 결석을 분쇄할 수 있다. 홀뮴레이저는 결석

을 광열 효과로 기화시킴으로써 돌이 조각으로 나뉘어지기도 하지만, 돌의 크기를 감소시켜서 배석을 더욱 효과적으로 기능하게 하고, 잔석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결석의 성분에 관계없이 모두 분쇄할 수 있으며, 긴 파장으로 악한 충격파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요관 결석의 상부 이동이 적다. 그리고 잘 휘어지는 부드러운 연성 Fiber를 통해 에너지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뇨계 전체를 대상으로 체내 쇄석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홀뮴레이저를 이용하여 결석을 분쇄할 때는 Fiber Tip을 결석의 표면과 직각을 이루며 거의 결석에 닿을 정도로 접근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쇄석을 진행할 수 있다.



홀뮴레이저는 결석의 성분과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결석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분쇄할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홀뮴레이저를 이용한 요관경하배석술에서 수술 성공률은 일부 신장 결석과 상부 요관 결석을 포함하여 모든 요관 결석에서 97-100%의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홀뮴레이저의 장점으로 요관 결석의 상부이동 및 요관 손상의 위험성은 심각하지 않다. 다만 일부 연구자들은 매복된 결석(Impacted Stone)에서 상대적으로 광열에 노출되는 홀뮴레이저 조사 시간이 길어져 요관벽의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매복된 결석에서는 무리하게 시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매복된 결석의 경우 관류액의 압력을 조절하여 충분한 시야와 공간을 확보하여 레이저를 결석에 정확히 조준하여야 하며, 적색 유도광(Aiming Beam)이 식별되지 않으면 즉시 레이저 조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요관경하배석술 중 홀뮴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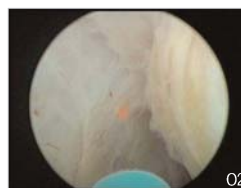
저를 이용하면 보다 얇은 365 μ m Fiber로도 효과적으로 쇄석이 가능하므로, 다른 종류의 체내 쇄석기보다 시야 확보와 정확한 조준이 용이하였다. 필자는 요관 결석의 경우 1.0J at 10Hz Power Setting을 선호하며 상황에 맞게 출력을 가감하여 수술에 이용한다. 전립선비대증 수술 중 우연히 만나게 되는 전립선내 결석이나 방광결석은 기구의 교체 없이도 바로 홀뮴레이저로 분쇄하여 제거하고 수술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술자 편이성 면에서 홀뮴레이저를 단연 최선으로 꼽을 수 있다. 방광 결석의 경우 6cm 정도의 큰 방광 결석도 홀뮴레이저를 이용하여 잔석 없이 제거 가능하였다고 보고된바 있다. 방광결석은 구경이 큰 550 μ m Fiber로 보다 높은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이지만 방광경의 시야 내에서 많이 떨리게 되므로, Open And Ureteral Catheter를 방광경에 삽입하고 레이저 Fiber를 Catheter Lumen으로 넣어서 사용하면 조준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조준만 정확히 한다면 방광 점막의 손상은 거의 없이 수술을 쉽게 진행할 수 있다.

홀렙(HoLEP) - 홀뮴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선종 적출

1994년 고출력 홀뮴레이저가 임상에 도입되었을 당시에는 홀뮴레이저는 절제나 기화에, Nd:YAG 레이저는 지혈에 이용하여 두 가지 레이저의 혼합 형태인 CELAP(Combination Endoscopic Laser Ablation of the Prostate)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홀뮴레이저의 지혈 효과가 명백해짐에 따라 홀뮴레이저를 단독으로 이용한 기화 술식인 HoLAP(Holmium Laser Ablation of the Prostate)이나 절제 술식인 HoLRP(Holmium Laser Resection of the Prostate)로 발전하였다. HoLRP를 시행하면서 비대된 이행대를 싸고 있는 외과적 피막이 분명히 확인되고 이를 따라 박리가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전립선종의 Enucleation이 시도되었다. Enucleation 수술 초창기에는 전립선 피막으로부터 분리된 Adenoma를 체외로 제거하기 위해,

Adenoma를 완전히 분리하지 않고 방광 정부에 마치 버섯처럼 붙여놓고, 고식적인 절제경의 Hot Loop로 TURP 하듯이 분리된 선종을 깎아내어 Chip을 제거하였다(Mushroom Technique). 분리된 큰 전립선 조직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분쇄기(Morcellator)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고, 1996년 드디어 분쇄기가 개발되어 HoLEP (Holmium Laser Enucleation of the Prostate)으로의 술기가 정착되었다.

홀렙은 개복 전립선적출술(Open Prostatectomy)과 마찬가지로 외과적 피막(Surgical Capsule)을 따라 비대된 전립선종(Adenoma)을 박리 및 적출한 뒤 방광 안으로 밀어 넣고 분쇄기(Morcellator)로 분쇄하여 몸 밖으로 제거하는 내시경 수술로 요약할 수 있다.



01. 홀렙 수술은 adenoma와 surgical capsule을 찾아박리하며, adenoma를 통째로 분리하여 방광으로 밀어넣은 후, 조직분쇄기를 이용하여 홀뮴 제거하는 전립선비대증의 최소침습적수술 중 한가지이다.

02. 전립선우측면한자 기준을 분리하고있는 장면 중앙의 fiber를 기준으로 사진우측분리된 선종이고, 좌측의 매끈한면이외과적 피막(surgical capsule)이다. 홀렙수술은정확한surgical plane을 찾아박리하면 전립선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아주 손조롭고 빠르게 진행된다.

이러한 홀렙의 장점으로서는 (1)홀뮴레이저의 특성으로 효과적인 지혈이 가능하여 출혈이 적고, (2)관류액으로 생리식염수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저나트륨혈증 등 TUR 증후군의 위험이 없는 점, (3)침투 깊이가 얇으므로 주변 조직의 손상 위험이 적다는 점, (4)다른 레이저 수술과는 다르게 조직을 얻을 수 있어 조직검사가 가능하다는 점 (5)전립선종의 크기에 상관없이 빠르고 안전하게 수술을 마칠 수 있는 최소침습적 수술법이라는 점 등이 있다. 이에 반해 초기 비용이 비교적 많이 들고, 학습곡선(Learning Curve)이 길다는 점을 단점으로 꼽을 수 있다.

TUR-P와 홀렙을 비교한 연구들에서 술 후 IPSS 점수, 최대요속 및 잔뇨량, 성기능 면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개복수술과 비교한 연구에서도 술 후 IPSS 점수, 최대요속 및 잔뇨량에 차이가 없었다. 개복수술(Open Prostatectomy)과 비교해서 제거된 조직의 양이 홀렙을 시행한 군에서 다소 적은 면도 있었으나 그 차이는 미미하며 홀뮴레이저의 기화효과에 기인한 것으로도 추정된다. 수술 후 입원 기간, 도뇨관 유치 기간, 실혈량 및 수혈량은 TUR-P나 개복수술 보다 홀렙을 시행한 군이 확연히 적었다. 필자의 경우 15개월 동안 약 380례의 홀렙을 시행하며 수혈이 필요했던 예는 없었고 초기 4-5례를 제외하고는 모든 레에서 수술 후 1일 째 도뇨관을 제거하고 조기에 퇴원가능 하였다.

홀렙수술을 처음 시행한 Peter J. Gilling(Tauranga, New Zealand)은 홀렙 수술의 개념이 Open Prostatectomy와 거의 같다고 밝히고 있으며,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고 학습곡선이 길며 체계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홀렙이 각종 전립선비대증에 소개되는 등 전립선비대증의 새로운 표준 치료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대부분 전립선비대증 치료에 있어 약물치료를 널리 시행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전립선의 크기가 큰 경우나 약물치료에 불만족스러운 경우 수술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신기술로 속하는 홀렙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는 수술 효과의 지속성(Durability)이라고 할 수 있다. 홀렙을 시행한 71명을 평균 6.1년(4.1-8.1년) 추적한 연구에서 Gilling은 홀렙 후 92%의 환자가 추적기간 동안 수술 효과에 만족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연구에서 수술 후 평균 IPSS 8.5점, 평균 QoL Score 1.8점, 평균 최고요속 19ml/sec 정도로 아주 양호한 결과 유지되었고, 추적기간 동안 재수술률은 단지 1.4%였다. 이제까지 발표된 연구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수술 후 4-5년 이상 기간 동안 재수술률은 0-4.2% 내외였다. 홀렙으로 제거 가능한 Adenoma는 평균 27.2gm(2-152)정도이며, 제거된 조직에서 전립선암이 발견된 경우는 약 2.8%였다. 평균

PSA는 술전 4.6ng/ml에서 술후 1.8ng/ml로 6개월 동안 약 61%정도 감소하였다. 아직 10년 이상의 장기간 추적 결과는 없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홀렙은 TURP나 Open Prostatectomy와 비교해도 손색없을 정도의 수술 결과를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

홀렙수술을 시행하고 있는 국내외의 많은 연구자들은 항상 홀렙의 대표적인 단점으로 수술의 경과와 홀룽하나 난이도가 높다는 점을 꼽는다. 더구나 개원가에서 학습곡선을 길게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학습곡선을 가능한 빨리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기법이 기술된 문헌과 수술 장면이 녹화된 비디오도 도움이 많이 되며, 이를 토대로 자기만의 술식을 빨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자의 경우에는 외과적 피막(Surgical Capsule)이 잘 발달된 정구 양측에 항상 먼저 절개를 가하고 방광 경부로 절개선을 연장시킨다. Median Lobe을 먼저 제거해야 양측 Lateral Lobe을 분리할 때 공간을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정구에서 내시경을 뒤집어 레이저로 전립선 요도 12시 방향의 점막에 얇은 종절개를 가하여 이 흔적을 land mark로 삼아 외요도 괄약근 손상을 방지한다. 아직 문헌에서 확인은 하지 못하였으나 필자의 경험으로는 술 전 전립선 초음파 영상에서 이행대의 음영이 확연히 구분 되는 경우가 Adenoma Maturation이 잘 되어 있어 박리가 용이한 편이었다. 필자는 Enucleation 동안 관류액을 Suction하지 않고 Natural Drainage 시키는데, 이는 음압이 걸리면 갑자기 Capsule과 Adenoma 사이 공간이 Collapse되어 시야확보가 안 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술 중 Retention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자주 관류액을 제거하는 편이다.

Morcellation 시 이용되는 0도 Nephroscope은 Enucleation에 사용하는 4mm 30도 Telescope보다 시야가 확연히 어둡고 나빠지기 때문에 Morcellation 전에 지혈을 철저히 하여 배출되는 관류액을 최대한 맑게 하여야 한다. 일단 Enucleation이 끝나면 관류액의 압력을 낮추어 Bleeding Focus를 정확히 찾아 레이저를 조사하는

것도 지혈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Morcellation 시 최대한 관류액을 방광에 채우게 되면, 공간도 충분히 확보되며, 방광 점막이 Morcellator에 갑자기 딸려 오는 경우도 거의 없고, 미세한 정맥출혈로 인한 시야의 흐림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Reciprocal Movement를 이용한 Morcellation 중 방광 손상이 발견되면 즉시 멈추고 Inner Blade를 탈착 시키면서 내강으로 관류액을 넣어주면 안전하게 방광 조직을 Morcellator에서 제거할 수 있다. Mucosal Tearing 정도의 방광 손상은 수술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지만, Perivesical Fat이 보일 정도의 방광 손상이 발생하였다면 가능한 방광이 과팽창 되는 것을 방지하며 Morcellation을 진행하면 된다. 분리된 Adenoma Nodule이 단단한 경우 레이저나 절제경으로 Adenoma 표면에 얇은 절개를 가하면 보다 빠르게 Morcellation을 진행할 수 있다. 경험이 적은 초반에는 Morcellation도 시간이 수술시간의 절반가까이 차지하는 경우도 흔하게 있지만, 경험이 축적되면 대부분의 경우 5-10분 안에 종료할 수 있다. 홀렙수술은 타수술보다 난이도가 높으므로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고도의 집중이 필요하므로, 개원의 입장에서는 특히 외래진료나 환자의 마취 상태에 술자가 간섭을 거의 받지 않는 환경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또 하나의 학습곡선을 단축할 수 있는 Tip은 매번 수술 후 전립선 초음파를 시행하여 혹시라도 남아 있을 수 있는 Daughter Nodule 등의 Residual Adenoma를 확인하는 것이다. 홀뮴레이저는 기화에도 탁월하므로 남아있는 조직이 확인된다면 홀뮴레이저로 기화시키거나 절제하여 제거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 일 수도 있으나 Capsular Injury 없이 완벽히 Adenoma가 제거된 경우에는 수술 후 환자의 경과가 매우 훌륭하여 만족도가 높다. 수술 후 초기에는 배뇨통 및 자극 증상이 있을 수 있으나, 1-3개월 내에 대부분 회복되고, 문헌에서도 실제 필자의 경험에서도 홀렙수술 후 요실금은 거의 없으므로 자신을 갖고 수술에 임하면 된다.

절제(resection)가 필요 없는 전립선절개술(TUI-P,

Transurethral Incision of the Prostate)에서도 홀뮴레이저는 사용이 매우 편리하고 경과도 매우 좋은 편이다. 홀뮴레이저는 절개와 함께 지혈효과도 우수하므로 TUIP의 경우 낮 병동을 이용한 당일수술(Day Surgery)로 시행 가능하다. 필자의 경우에도 방광경부협착(Bladder Neck Contracture)의 경우 홀뮴레이저를 이용한 Bladder Neck Incision을 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경과도 좋은 편이다. 2cm 이하의 단순한 전부요도협착의 경우에도 홀뮴레이저를 이용한 내요도절개술은 안전하며 효과도 좋은 편이다. 고식적인 Cold-knife를 이용한 수술보다 홀뮴레이저의 좋은 점은 수술 중, 그리고 수술 후 출혈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필자는 내요도절개술의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수술 후 도뇨관은 2-3일만에 일찍 제거하는 편이고 수술 후 경과는 아직까지는 좋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홀뮴레이저는 내신우절개술(Endopyelotomy)나 요도협착에도 이용될 수 있으며 아주 훌륭한 성과가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홀뮴레이저의 우수한 특성으로 비뇨기계뿐만 아니라 간담도계의 내시경 수술에도 이용되는 등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비뇨기계 수술에 이용되는 여러 종류의 레이저 중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필자는 단연 홀뮴레이저를 선택하겠다. 홀뮴레이저는 우수한 절개와 지혈효과로 홀렙수술은 물론이고 요도협착, 방광경부 협착 등의 다양한 연부조직 수술에 이용될 수 있고, 물 속에서도 강력한 광열효과로 매우 빠르고 안전하게 모든 종류의 결석을 분쇄할 수 있어 여러모로 비뇨기과 의사에게 유용하기 때문이다. 홀뮴레이저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1회 수술 시 소모품이 다른 종류의 레이저보다는 경비가 적게 들고, 현행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체계에서 소액이나마 재료비가 산정된 일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무엇보다 홀렙수술을 포함하여 홀뮴레이저를 사용하는 수술에 있어 술자 나름대로의 경험을 축적한다면 홀뮴레이저는 비뇨기과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토마토의 섭취가 전립선암 위험에 미치는 효과



글 두진경(대한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무임소 이사, 어비뇨기과 원장)

1. Introduction

토마토에는 콜레스테롤이 없으며 지방과 칼로리가 매우 낮은 과일이다. 토마토 전체 무게의 약 5-10%가 물을 제외한 성분인데, 이중 약 절반은 환원당(reducing sugar)이며 10%는 citrate나 malate같은 유기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토마토 전체 무게의 약 2%는 섬유질, 그리고 1%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potassium, folate, ascorbic acid, vitamin A(β -carotene) 및 tocopherol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Non-provitamin A carotenoid 성분으로 lycopene 등이 존재한다.

2 lycopene metabolism

Lycopene은 주로 토마토의 붉은 색깔을 내주는 carotenoid이며, 토마토 pulp보다는 껍질에 약 3-5배 정도 더 높은 농도로 존재한다. 또한 human plasma의 carotenoid에서도 가장 많은 성분이다.

토마토음식을 섭취하면 성인의 plasma lycopene이 증가하며, lycopene의 isomerization이 체내 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lycopene의 cis-isomer는 토마토를 요리 혹은 가공할 때 만들어지며 trans-isomer보다 체내 이용률(bioavailability)이 더 높다.

토마토 혹은 lycopene이 전립선암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전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antioxidant mechanism이지만, 이외에도 proliferation & apoptosis, growth factor & steroid hormone action, epigenetics, carcinogen-metabolizing enzymes, gap junction communication, anti-inflammatory activity 등이 알려져 있다.

3. human studies

1995년에 Giovannucci 등이 50,000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전향적 연구결과에서 토마토가 전립선암의 위험을 낮춘다는 결과를 확인하였고, 토마토 성분중에 lycopene이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하였다.(multivariate RR = 0.65; 95% CI = 0.44-0.95, for consumption frequency greater than 10 versus less than 1.5 servings per week; P for trend = .01)

Bowen 등은 근치적 전립선적출술받기 전의 전립선암 환자에게 토마토음식으로 30mg/day lycopene을 섭취하여 leukocyte와 prostate tissue oxidative DNA damage가 감소하고 평균 PSA가 10.9ng/ml에서 8.7ng/ml로 감소됨을 보고하였으며, Kucuk 등도 같은 방법으로 PSA가 감소되고 수술후 조직검사에서 less aggressive feature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4. experimental models

전립선암 쥐모델에서는 lycopene 성분만 단독으로 투여한 경우보다는 tomato powder를 투여한 경우에 전립선암의 성장을 inhibition 하는데 더 효과적이었으며, 최근에 Mossine 등은 freeze-dried tomato powder가 prostate carcinogenesis를 억제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전립선암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은 토마토의 여러 성분이며 이중 lycopene이 있음을 알 수 있다.

5. 미국FDA의 qualified health claim

2004년에 미국 FDA가 토마토캐첩제조회사인 Heinz Company의 캐첩광고에서 lycopene 효능을 주장하는 광고를 금지하자 Heinz회사에서 토마토 또는 lycopene 섭취가 전립선암의 감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는데, FDA는 이를 받아들여 그때까지 나온 논문을 종합한 결과 토마토섭취가 전립선암위험 감소에 limited credible evidence라고 밝혔으며, 2005년 11월에는 일주일에 1/2 1컵의 토마토 혹은 토마토소스를 섭취하는 것이 전립선암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도 있는 매우 제한적인 예비연구결과 (very limited and preliminary scientific research) 가 있다라고 회신하였다.

출처 Mdfaculty(www.mdfaculty.cokr)

참고문헌

1. Shi J, Le Maguer M. Lycopene in tomatoes: chemical and physical properties affected by food processing. Crit Rev Biotechnol 2000;20:293-334
2. Allen CM, Schwartz SJ, Craft NE, et al. Changes in plasma and oral mucosal lycopene isomer concentrations in healthy adults consuming standard servings of processed tomato products. Nutr Cancer 2003;47:48-56
3. Unlu NZ, Bohn T, Francis DM, et al. Lycopene

from heat-induced cis-isomer-rich tomato sauce is more bioavailable than from all-trans-rich tomato sauce in human subjects. Br J Nutr 2007;98:140-6

4. Tan HL, Thomas-Ahner JM, Grainger EM, et al. Tomato-based food products for prostate cancer prevention: what have we learned? Cancer Metastasis Rev 2010;29:553-68

5. Giovannucci E, Ascherio A, Rimm EB, et al. Intake of carotenoids and retinol in relation to risk of prostate cancer. J Natl Cancer Inst 1995;87:1767-76

6. Bowen P, Chen L, Stacewicz-Sapuntzakis M, et al. Tomato sauce supplementation and prostate cancer: lycopene accumulation and modulation of biomarkers of carcinogenesis. Exp Biol Med (Maywood) 2002;227:886-93

7. Kucuk O, Sarkar FH, Djuric Z, et al. Effects of lycopene supplementation in patients with localized prostate cancer. Exp Biol Med (Maywood) 2002;227:881-5

8. Canene-Adams K, Lindshield BL, Wang S, et al. Combinations of tomato and broccoli enhance antitumor activity in dunning r3327-h prostate adenocarcinomas. Cancer Res 2007;67:836-43

9. Mossine VV, Chopra P, Mawhinney TP. Interaction of tomato lycopene and ketosamine against rat prostate tumorigenesis. Cancer Res 2008;68:4384-91

10. Kavanaugh CJ, Trumbo PR, Ellwood KC.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s evidence-based review for qualified health claims: tomatoes, lycopene, and cancer. J Natl Cancer Inst 2007;99:1074-85

2010년 대한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추계학술대회 이모저모

글 두진경(대한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무임소 이사, 어비뇨기과 원장)

1. 개회사 및 학술상 시상식

대한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의 진길남 회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면서 미국비뇨기과학회에 남성호르몬 치료에 대한 연구결과를 직접 발표하신 타워비뇨기과의 유정우 원장님과 새로운 정관수술기체인 double-ringed clamp를 개발하신 씨알비뇨기과의 문현준 원장님께 학술상을 수여하였습니다.

2. 특강

타워비뇨기과 유정우 원장님 강의요약

- 남성갱년기환자에서 남성호르몬치료를 잘 반응하지 않는 위험인자로 당뇨와 대사증후군이 있다.

씨알비뇨기과 문현준 원장님 강의요약

- Double-ringed clamp를 사용하면 정관수술을 좀더 쉽게 할 수 있다.

비뇨기과 개원의로서 높은 학술적인 내용을 발표해주신 두 원장님의 강의에 많은 분들이 경청하였습니다.

3. 대한비뇨기과학회 정문기 회장님의 축사

현재 어려운 비뇨기과 개원의 현실을 말씀해주시고, 개원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노인요양병원에 비뇨기과 의무배치와 국가암 검진사업에 전립선암 포함노력에 대해 말씀하시고, 비뇨기과 전공의 감축안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4. 성균관대의대 이규성 교수님께서 전립선에서 5 alpha reductatase의 역할에 대해 특강

- 대부분의 연구에서 초기에 전립선증세를 호전하기 위해 combination therapy 한 후 alpha blocker를 중단해도 증상 악화가 없다. 따라서 6-9개월간 combination therapy 시행 후에 가각적인 면과 부작용 면을 고려해서 5 alpha reductase 만 유지하는 것이 추천된다.

5. 음경확대술

북경의대 신종성 교수님께서 지방유래 줄기세포(adipose tissue derived stem cell)을 이용하여 북경대학의 음경확대술 치료효과에 대해 강의해주셨습니다.

중앙의대 김세철 교수님께서 수술을 하지 않고 주사요법으로 음경확대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주사제(Lipen; Dextran+PMMA)를 이용한 음경확대술에 대해서 강의해주셨습니다.

LJ 비뇨기과 이용희 원장님께서 지금까지 나온 음경확대술에 대한 시술방법 및 이에 따른 합병증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강의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주사제제로 음경확대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인지 가장 많은 비뇨기과개원의 선생님들이 참석하여 어려운 비뇨기과 개원현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6. 성균관의대 이성원 교수님께서 Novel PDE5 inhibitor, BRAVONTO에 대해 강의

- 최근 SK 제약에서 개발한 엠빅스와 같은 성분인 Mirodenafil로 만들어진 한국안센제약의 BRAVONTO도 같은 치료효과를 보였다.

7. CJ 뉴트라 특강으로 Lycopene의 전립선질환 예방 효과

미국 Emory university의 Omer Kucuk 선생님께서 토마토의 lycopene이 전립선암을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강의하였습니다.

8. 박경철 원장님의 시골의사 박경철의 경제 이야기

현재 우리나라와 세계의 경제흐름을 살펴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 박경철 원장님이 강의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인지 많은 분들이 경청하였습니다.

9. 진료의 효율성을 높이는 의료커뮤니케이션

진료를 볼 때 환자와의 대화 시 의사 목소리 중요성에 대해서 SBS 성우인 강은하 새봄커뮤니케이션 대표님께서 강의하였습니다. L반침의 조음점을 지키고 말끝을 내리면 환자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대화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10. Tip and Tricks

윤문수비뇨기과 원장님께서 개인의원에서 전립선수술 중 PVP와 TURP 비교에 대해 강의하였습니다. 결론은 PVP와 TURP의 효과는 둘 다 좋지만, PVP는 전립선비대증이 큰 경우에는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으며, 아직 장기추적결과가 없다는 약점이 있네요.

11. 고려대 산부인과 송재윤교수님의 비뇨기과개원의가 알아야 할 질염 및 골반염

최근 여성비뇨기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이중 가장 많은 질환중의 하나인 여성의 질염 및 골반염에 대해서 좋은 강의가 되었습니다.

12. 피부트러블 환자에 대한 박피치료의 효과

봄마루비뇨기과 이유식 원장님께서 다양한 피부환자에 대해 chemical peeling에 대한 효과를 말씀하시면서 필링에 대한 부작용과 주의사항에 대해 강의해주셨습니다.





권순생 원장의 Art Gallery

어떤 바블이기를 원하세요?

글, 미술 컬렉터 권순생(멘파워비노기과 원장) 그림 이동기



이동기 Bubbles 120X120cm 2008

이 그림은 아토마우스로 유명한 아동기 작가의 버블 시리즈의 한 작품이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아토마우스의 머리가 풍선 형태로 가득 떠 있다.

붉은 빛이 주를 이루고 있어 파란 하늘과 강한 대조를 이루며 보는 이의 시선을 붙잡는다.

아동기 작가는 나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1967년 같은 해에 태어났고, 내가 의사 면허증을 획득하고 꿈 많은 인턴 시절을 시작한 1993년에 작가도 아토마우스를 창조해 냈다.

작가는 일본 만화 아톰과 미국 만화 미키마우스를 결합시켜 아토마우스를 만들었는데, 아톰의 두상에 미키마우스의 모습을 넣어 새로운 그림의 캐릭터를 창조했다.

이런 시도는 60년대에 이미 미국에서 유행한 팝아트를 90년대 들어서야 단순히 차용한 작가라며 엄청난 비난과 안타판을 양산했지만 작가는 그의 대학원 논문에 언급했듯이 작가의 자율성을 파괴함으로써 관람객들에 권력을 돌려주겠다'는 표현으로 작가의 고충을 표현했다.

어떤 생각과 숨겨진 의미를 떠나서 나는 아동기의 아토마우스를 이제는 나의 생활, 문화의 한 조각으로 느끼고 즐겨워한다.

내 수첩은 아동기의 작품 '꽃밭'이 표지이고, 아토마우스 컵으로 커피를 마시고, 아토마우스 캐릭터 휴대폰 줄에, 아토마우스로 가득한 가방을 들고 다닌다.

작품이 미술관에서 걸어 나와 우리 생활에 같이 존재하는 모습이 너무 즐겁다.

한때 을지로 지하철역에 벽화로 작품을 설치했다가 유치하다는 수많은 항의로 작품을 철거해야만 했던 아픈 과거도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곁으로 와준 아토마우스 작가 이동기가 일본의 무라카미 다카시나 요시모토 나라를 넘어 세계의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가 되리라 믿는다.

자꾸 이 그림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 많은 아토마우스 버블 중 나는 어떤 버블이 되고 싶은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곧 나는 미소를 짓고 가운데 있는 조금 작은 버블로 바로 선택할 수 있었다.

버블은 말 그대로 언제 터져 버릴지 모르는 거품이다. 그렇다면 이제 자라나는 풍선이고 싶었다. 이미 터져 버린 버블이나 이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어 사라질 날만을 기다리는 버블보다는 내일이 있고 꿈을 꾸는 버블이고 싶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버블은 어떤 버블이세요?

*일부 내용은 임근준의 크레이지 아트 메이트인 코리아에서 차용합니다.

브레인스캔 120X120cm 2009-2010

만화처럼 보이는 이 작품 속 주인공은 실제로는 작가 자신이다. 본인 머릿속의 상상력을 뽑아내서 작품을 그린다는 뜻이다.

달리 41.0X31.8cm 2010

이동기 작가가 좋아하고 되고 싶은 롤 모델 중 한명이 달리라고 한다. 이동기 작가와 매우 비슷한 달리가 재미있다.

스모킹 120X120cm 2009

막 브레인 스캔으로 나온 담배 피는 아토마우스. 마치 담배연기가 환각에 빠진 작가를 보여주는 것 같다. 초기의 스모킹보다 훨씬 색깔이 다양해지고 강렬하게 변했다.





인너 스페이스 100X160cm

갑자기 해부도 그림을 그렸다. 그것도 비뇨기과용으로, 비뇨기과 의사라면 진료실에 하나 걸어 두고 싶은 작품이다. 해부학적 인형을 많이 만든 데미안 허스트에 대한 팝아트적 해석으로 봐야 할까?

Three Atomauses acrylic on canvas 70X90cm 2010

일 년에 한번 홍콩에서는 AAA경매라는 자선경매가 있다. 작가나 컬렉터가 작품을 기증하면 세계적인 컬렉터들이 저녁에 만찬을 같이 하면서 작품을 비싸게 사주고 그 수익을 전부 불우이웃에 기부하는 행사다. 작년 경매에 출품작으로 아토마우스의 A가 세 개 모여 있어 AAA경매를 의미합니다.

Beat it 32X41cm 2010

마이클잭슨의 Beat it! 우리 시대 모두의 최고의 팝송으로 영원히 기억된다. 마이클잭슨이 상대 무용수와 서로의 왼손을 묶고 칼을 들고 싸우던 장면을 아토마우스로 변신시켜 재미있다.

2010 디하모니 송년

• 일시: 2010. 12. 18(목) 19:30

• 장소: 대전문화센터

연합비노기과 윤율로 원장

음악은 나의 인생

의사가 의술을 넘어 예술에 도전한다. 주인공인 윤율로 대전연합비노기과 원장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모든 상념이 사라진다고 말하는 음악예찬가다. 대전의 한 오페라 공연장에서 턱수염이 멋스러운 그를 만나 그가 들려주는 음악이야기를 들어봤다.

글 윤율로(대전 연합비노기과 원장) 정리 이동림 사진 이주혁



문득 초등학교시절에 피아노를 치던 큰누님의 반주에 맞추어 ‘동구박 기수원길’을 열심히 부르던 나의 모습이 떠오른다. 지금 생각해 봐도 틈만 나면 왜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지 잘 모르겠다. 지금도 노

래를 잘 부르지 못해 매주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그 이유도 아직은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가장 이름답고 질이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으며, 부르는 가사 속에 빠져들어 곡을 만들고 가사를 만든 이의 세계 속에 동화될 것인지만을 생각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노래를 부르고 나면 행복하다는 것이다. 물론 내가 노래를 행복하게 부를 수 있도록 탄탄히 받치고 있는 나의 모든 환경을 더욱 사랑하지만 말이다.

영혼의 슬리스트를 꿈꾸다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다. 학교를 가는 도중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신비하고도 아름다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어떤 악기인지도 알지 못하였고 그때까지 살아오는 동안 처음 들었던 소리였다.

며칠간의 노력 끝에 그 소리의 주인공이 바이올린임을 알아내었고 당시 초등학교 교사였던 아버님의 형편으로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괴물을 얻기에 고심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큰누님이 작은 월급을 쪼개어 시주시키는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레슨비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몇 가지 일들을 돌이켜 보면 어려서부터 내 몸속에 음악에 대한 작은 열정이 잠재해 있었던가 보다. 고등학교시절에는 음악시간이 기다려지기도 하였다.

한번은 음악실기시험으로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선구자’를 성악형태로 불렀던 나와, 날아 가는 듯한 목소리의 유행가 형태로 불렀던 다른 친구가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었다. 하지만 내가 성악가의 모습으



로 노래를 하기 시작했을 때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튀어나왔고 어떤 아이들은 의아한 눈초리이기도 하지만 진지하게 경청했다.

지금까지 기억되는 것으로 보아 나에겐 매우 인상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다. 나는 교회생활을 통하여 일찍이 음악에 접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해가 약간은 있었지만 이러한 경험이 없었던 여러 아이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분위기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의 작은 음악행보는 음악대학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으나 의과대학

시절 합창단을 창단하여 지휘를 하였고 음악제의 총연출을 맡았던 기억은 지금도 생각할수록 더욱 세록 세록하다.

공부를 소홀히 하여 음악활동이 성적을 떨어뜨리지는 않았지만 지금 마음속에 훈훈히 남아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은 공부보다는 취미생활이었음이 확실하다. 이러한 경험은 후에 모교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내가 창단했던 합창단의 지도 교수를 통해 후배요 제자들에게 빠뜨리지 않고 강조하였던 점 중 하나이기도 했다.

영화는 끝나도 음악은 남아있다

취미는 직업은 아니지만 자기 내면을 성숙시키고 삶을 풍성하게 하기위해서 하는 것이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수준에 필적하는 실력을 갖추어야 되고 이에 따르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된다. 하지만 이후에는 자기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기쁨과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된다는 지론을 피력했던 것이다.

이제는 대학을 나와 자그마한 개인병원을 운영하면서 합창단 후배들과 함께 남성 중창단 디 하모니에서 솔리스트로 성악활동을 하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매주 2시간씩 빠지지 않고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가며 진지하게 연습하고, 급기야는 예술의 전당 연주를 포함하여 매년 수차례의 초청연주까지 하면서 아마추어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모습들은 짧은 시간 내에 이룩된 것은 결코 아니다.

오페라, 재즈, 민요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해 내는 우리의 무대 관록에 종교단체, 의사회 등 각 분야에서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과분하지만 나쁘지도 않다.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편하고 재미있는 의사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후배들에게도 의사생활의 본이 되고 싶다. 각자 오랜 세월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고 추구해왔던 그 어떤 것을 이제는 음악과 함께 행복으로 공유해가고 있는 것이다.

음악이란 지금 나이 대에 새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누구나 세상의 수레바퀴에 물려 정신없이 세월을 보내야만 하는 시절이 있고 무언가를 아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은 명예도 돈도 아니다. 우리의 내면을 성숙시키고 풍성하게 해주는 그 무엇인가를 지금이라도 시작한다면 결코 늦지 않을 것이다.

DOCTOR'S HARMO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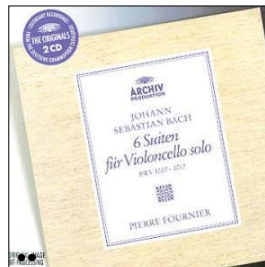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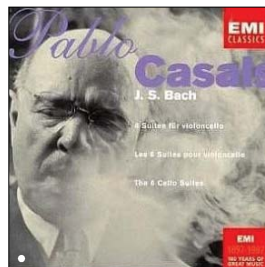
‘디 하모니’는 기존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클래식 · 가곡 · 민요 · 동요 · 팝송 ·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를 보여주는 크로스 오버 남성복4중창단이다.

멤버들은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진 순수 아마추어 총남의대 출신 의사들로 2005년 4월 대전 KBS방송 공연을 통해 첫 선을 보인 후 뮤지컬 배우 겸 성악가로 활동 중인 테너 강연중의 지도아래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이다.

디 하모니는 매년 정기연주회를 포함해 지금까지 150여 차례 초청 음악회와 의료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윤율로 원장이 추천하는 클래식 음반

〈J.S 바흐, 무반주 첼로 조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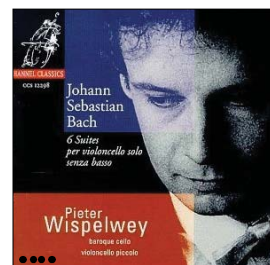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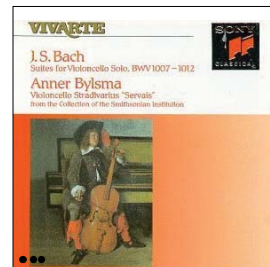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은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와 파르티타와 함께 독주악기를 위해 작곡된 곡 중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곡은 첼로라는 악기가 낼 수 있는 모든 버라이어티한 기교와 넓은 감성적 표현 범위, 선율의 얹혀 등과 서로 대화하는 방식에 대한 풍부한 아이디어로 뛰어난 걸작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이 모음곡은 첼로뿐만 아니라 바이올린, 비올라, 비올라 다 감바와 같은 현악기 뿐만 아니라 목관과 금관악기 등의 다양한 악기로 변형되어 연주되며 그 존재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첼로의 성사와 불리는 곡만큼 수많은 첼리스트들이 연주했다. 먼저 이 곡 연주의 초석을 놓은 파블로 카잘스의 역사적 명연을 빼놓을 수 없다. 피에르 푸르니에의 연주는 카잘스의 목직한 연주와는 달리 나긋한 보양과 노래가 살아있는 연주다.

안너 빌스마는 바흐 당대의 첼로를 가지고 멋스럽고 고풍스러운 음악을 만들어냈다. 빌스마의 제자인 피터 비스펠베이는 우리 시대의 명반을 만들어낸 젊은 거장이다.

- 파블로 카잘스(1938, EMI) ●● 피에르푸르니에(1960, DG)
- 안너빌스마(1992, SONY)
- 피터비스펠베이(1998, CHANNEL CLASSICS)



포항 화인비뇨기과 이재원 원장

지역사랑 실천하는 문화애호가

의사가 되기 위해 고향을 떠나 있었던 약10년 동안에도, 고향인 포항으로 돌아와 개원의가 된 이후에도 이재원 원장이 힘겨운 시간에 맞서야 할 때마다 그를 지탱해준 힘은 '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였다.

글 안송연





이 원장은 인턴과 레지던트를 서울아산병원에서 수련하고 전문의 취득 후 고향인 포항으로 내려왔다. 서울보다는 포항에서 도움이 될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서였다. 화인비노기과를 개원하고는 환자분들을 내 부모, 내 자식, 우리 이웃이라고 생각하며 진료했다. 단순히 취미로 시작했던 문화활동은 그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면서 이제는 일종의 문화운동처럼 되어간다.

고향 분들이 실내악을 들을 수 있도록 병원 로비에서 '화인음악회'를 열고, 포항시립교향악단의 발전과 수준 높은 공연문화의 조성을 위해 '시향사모(포항시립교향악단을 사랑하는 모임)'를 조직하는 것 외에도 수많은 문화활동을 통해 서울과 지방간의 문화적 격차를 극복하려 애쓰면서도 본인에게 문화애호가라는 호칭은 과찬이라며 겸연쩍어하는 이 원장과의 진솔하고도 유쾌한 인터뷰.

유로진 : 병원을 이끌어가는 원장으로서도 벅찬 일 들이 많을 것 같은데, 문화활동에까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이재원 : 본과생활과 수련기간을 합쳐 서울에서 약 10년간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예술적으로 훌륭한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는 행운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과의 교류 속에서 갖게 된 나름의 문화적인 생각들이 막상 고향에 내려오니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었어요.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되어있고 지방은 소외된 우리나라의 구조에서 문화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이런 건 사실 옳지 않죠. 뿌리가 튼튼해야 열매가 실하듯, 각 지역이 저마다의 특색을 갖고 균형 있게 발전해야하는 건데? 이런 생각들로 시작한 사적인 문화활동이 규모면에서 커지고, 공적으로도 기여가 되는 것을 보면 보람되기도 합니다.

유 : 현재 포항에서 하고 계신 활동들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이 : 교향악단의 발전에는 실내악의 발전이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포항엔 음대가 없어 실내악을 들을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로비에서 개원 이듬해부터 일종의 살롱음악회인 화인음악회를 열었죠. 항상 국악과 서양음악을 같이 들을 수 있는 식으로 꾸몄습니다. 가령 '현을 주제로 하는 연주회에서선 가야금, 아쟁 등의 국



악기 연주도 듣고, 서양악기인 현악 4중주도 들어 보는 식으로 말이죠.

화인음악화가 횡수를 거듭해가면서 그것이 가진 색이 짙어지고 더욱 전문적으로 변화한 것이 '연중 화인기획시리즈'입니다. 국악전문 공연인데요, 올해 '명창의 판소리 다섯바탕'이라는 기획프로그램에는 조상현 명창을 비롯해 여러 선생님들이 다녀가셨습니다.

참, '포항 판소리 감상회'도 빼놓을 수 없겠군요. 우리의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모임입니다. 지역에서 소리에 관심이 있거나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 : 가장 핵심적인 활동을 꼽으라면 역시 '시향사모'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 서울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포항에 내려와 보니 제가 고등학생일 때는 없었던 포항시립교향악단이 생겼더군요. 그래서 정기연주회에 가봤습니다. 사실 그때 관객 수와 운영 상황을 보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관객이 적은 이유가 클래식이 낯설고

어려워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홍보와 서비스 부족이 더 큰 것 같더군요. 그래서 음악애호가들이 모여 부족한 서비스 부분을 채우면 어떨까 고민했습니다. 관객이 먼저 변화를 만들어야 또 다른 자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이들과 시향사모를 조직하게 된 것입니다.

유 : 시향사모의 노력 덕분에인지 포항시향이 질적으로 크게 발전했습니다. 이것이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 : 관객이 없어 썰렁하던 공연장에 음악애호가들의 활기로 매워지면서 연주자들도 자극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유능한 상임지휘자가 오면서 탄력을 받게 되었죠. 포항시향은 관에서 운영하는 단체가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으로 운영되는 단체라는 인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올해 열리는 전국교향악축제에 포항시향이 4년 만에 초대된 것이 그간의 발전을 잘 말해줍니다. 이로써 포항 문화의 홍보는 물론 시민들도 직간접적으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유 : 포항시향이 20주년을 넘긴 이 시점에서 개선폰되어야 할 것,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 지면을 빌려서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시향은 예술가로 이루어진 전문단체입니다. 전문조직에 비전문조직이 너무 많은 간섭을 하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한데, 예술분야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말 예술가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그것이면 충분하죠. 시향이 법인으로 독립되기도 하고, 문화재단이 만들어져 예술을 통합적으로 기획·운영하는 것이 추세인데 그런 일들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참여하고 싶습니다.

유 : 국악, 클래식 등의 음악뿐 아니라 그림에까지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관심인지 문화의 다양성 측면에서 일부러 섭렵하신건지 궁금합니다.

이 : 예술에서 장르를 나눈다는 것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달리 보면 전체의 예술은 결국 하나라 나누기 힘들 것입니다. 일부러 섭렵했다기보다는 그저 문화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부족한 부분이 많아 다양한 자료를 찾고 보고, 배우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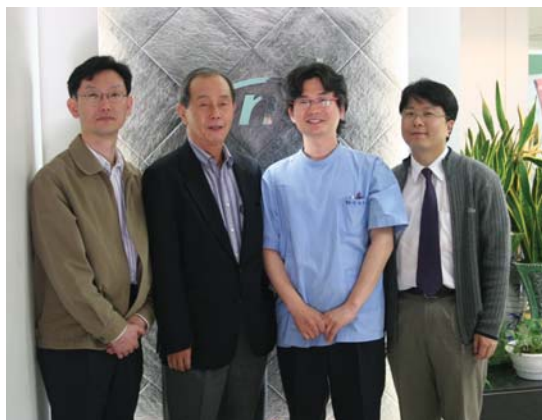
제가 의사로서 의료 전문가지만 의료행정에는 다소 미흡하듯 예술에서도 누구나 모든 장르에 전문

가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술 장르를 넘나드는 담론의 형성과 또 그것이 직접적으로 예술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예술도시'라는 모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예술가를 꿈꾸는 전공자들을 위한 장학사업도 계획하고 있고요.

유 : 끝으로 문화에 대한 원장님만의 정의를 내려주세요.

이 : 현대사회의 경쟁은 나와 너를, 우리를 여러 부류로 나눠놓기도 하죠. 그렇다보니 현대인들의 인성이 나날이 황폐해져가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는 다릅니다. 문화는 '나누기' 보다는 '더하기'죠. 그것도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이 아니라 1 더하기 1은 무한대라는 거죠. 모두를 아우르고 끌어안다보니 사람의 감정이 동하게 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문화산업 또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으니 문화를 발전시키면 여러 측면에서 고루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문화는 우리의 생활 그 자체일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생활과 동떨어진 문화는 부자연스럽게 꾸민 것에 불과하니까요. 문화와 밀접한 생활은 훨씬 부드럽고, 따뜻하고, 아름답지 않을까요?



강남자이병원 김진홍 원장

마음 속 고향, 세르비아!

김진홍 원장에게 세르비아로의 여행은 특별하다. 2003년 시작 된 그와 세르비아와의 인연, 그 중심에는 세계적인 성전환 전문의 故 사바 페로비치(Sava V. Perovic) 박사가 있다.

글 김진홍(강남자이병원 진료원장, 성전환클리닉 센터장) 정리 명슬기 사진 이주혁

“저한테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요. 초기에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조용히 불러서 ‘이런 식으로 한 거면 돌아가 라고 하셨을 때 온 몸에 전율이 왔어요.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배웠죠.”

2003년, 개원 후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무료한 생활을 접고 세르비아로 떠난 김진홍 원장은 사바 페로비치 박사와 1년 6개월을 함께 했다. 그 결과 김 원장은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를 통틀어 손에 꼽히는 성전환 전문의가 되었다. 국내보다 아시아, 유럽에서 더 명성을 얻는 권위자로 발돋움 하고 있다. 그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남성을 여성으로 전환시키는 수술을 넘어 여성을 남성으로 전환시키는 수술을 성공했다는 것이다.

“동료나 후배들이 수술을 지켜보러 종종 와요. 하지만 6시간 이상 진행되는 수술일정에 지쳐 중간에 돌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남성을 여성으로 바꾸든 여성을 남성으로 바꾸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이 낳는 것이 더 힘들나 군대 가는 게 더 힘들나 재는 것과 같죠. 문제는 집중과 열정이에요.”

현재 대한민국에도 천 명 중 한 명꼴로 성전환자가 살아가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태국 등 국외로 나가 수술을 받는다.

성전환 수술 대국이라 불리는 태국도 시장에 뛰어들지 불과 20년 밖에 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늦지 않았다는 게 김 원장의 생각이다.

“천 명 중 한 명이면 꽤 많은 숫자예요. 게다가 조금씩 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이들을 받아 줄 수 있도록 의료체계가 잡혀야 합니다. 주위 시선을 피해 국외로 나가는 이들이야 계속 있겠지만, 시장이 있다면 관심이 생기게 마련이죠. 우리 차가 인도도로 수출되고 인도차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외에서도 많은 환자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홍 원장이 매년 세르비아로 가는 이유는 학회 때문이다. 각국에 두 명 이상 찾아보기 힘든 성전환 전문의들과의 교류의 장이기도 하며, 故 사바 페로비치 박사를 추억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올해도 그는 바쁜 일정을 쫓개 어김없이 2박 3일간의 학회를 마쳤다. 세계적인 실력과 전문의들의 수술을 참관하기도 하고 새로운 학설을 접하기도 했다. 김진홍 원장의 세르비아 여행에 동행해보자.

BEOGRAD 기행문 고 사바 페로비치 교수를 기억하며, “How do you want to die?”

단순하면서도 답하기 까칠한 질문이다. 나이가 어영부영 들다가 보니 이런 질문이 농담으로 넘어가기에는 뭔가 잡아끄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존 트라볼타가 주연했던 Phenomenon이라는 영화에서 르네 르소가 Brain astrocytoma로 죽어가는 주인공을 잡으러 온 CIA요인들에게 ‘이제 그만 좀 혀~’ 하면서 설득할 때 써먹었던 대사인데, 이 대사가 기억에 남는 이유는 필자의 학생 때부터 잘못된 버릇인 벼락치기 공부 때문일지 모른다. 키케로가 ‘나의 재능은 부드러운 음식과 젊음은 포도주와 바뀌 먹었다’고 회상하였듯이, 필자도 교과서는 소주나 막걸리로 바뀌먹고 마지막 남은 시간은 학교 앞 복사집에서 쓰던 학창 생활을 하였기에, 외국에 나가기 몇 주를 남겨놓고 비디오 속에서 빌려온 영화를 보면서 귀를 트이게 하려고 노력할 때, 알아들은 몇 안 되는 sentence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 범인들의 생은 그러할 것이고 그래도 가방 끈이 좀 되고 먹물이 들은 사람이라면 ‘How do you want to be remembered?’도 적당할 거 같다.



작년 학회의 모습 페로비치 교수에게서 병색이 보인다 왼쪽부터 필자 폴란드의 보이체케(Prof. Wojciech Perdzynski), 사바, 미국 마이애미의 리드(Harold Reed) 박사

필자를 사람 만들어 주었던 故 페로비치 교수는 이미 한국에도 여러 번 다녀가셨고, 그분에 대한 정보와 그분의 작품들은 www.savaperovic.com을 방문하시면 독자들에게서도 쉽게 만나보실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그와 필자 사이에 인간적으로 엮인 소소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지면을 할애하고자 한다. 2004년 유로진에서 ‘不狂不戢’이라는 제목으로 연재한 바와 같이, 어떻게 하다가 보니 인연이 되었고 정이 들어서 가까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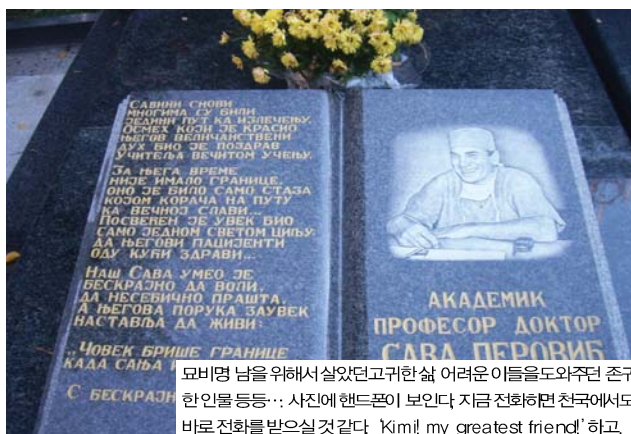
진 사이인데, 정 때문인지 떠나셨는데도 기억이 더욱 깊어지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 돌아가서도 가르쳐 주고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에 필자가 권순생, 신준식 선생님과 함께 다녀온 학회는 아래와 같고,

‘3rd Surgical Workshop of Complex Uro-Genital Reconstructive Surgery in Adulthood Sava Perovic’ in Belgrade 2-day Live-Surgery and Lectures 29-30 October 2010

다음과 같은 뻔한 이야기를 하고 왔다.

“Penile enhancement – can we really enlarge the penis?”



묘비명 남을 위해서 살았던 고귀한 삶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던 존귀한 인물 등등... 사진에 핸드폰이 보인다 지금 전화하면 천국에서도 바로 전화를 받으실 것 같다 'Kim! my greatest friend' 하고.

도착 첫 날 그분의 묘지에 다녀왔는데, 같이 갔던 사람들은 권순생 선생님과 러시아 모스크바의 드미트리 쿠르바토프(Prof. Dmitry G Kourbatov)와 우크라이나 키예프의 뮈콜라 보이코(Prof. Mukola Boiko) 선생님들이었다. 필자는 한국에서 초와향을 가져갔고, 드미트리는 꽃을 샀고, 뮈콜라는 좋은 보드카를 한 병 가져왔다. 소련 사람들도 무덤에서 망자에게 술을 권하는 풍습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무덤에 절을 하자 강한 인상을 받은 듯 했다. 다들, 사바가 돌아가신 뒤 혼으로 변한 그를 처음 만나는 낮이 서른 자리라서 그런지 분위기가 숙연했다. 소련 사람들도 무덤에서 우는 것을 보니 그 양반이 잘 사신 모양이다. 무덤에서 확인한 것은 그분의 CV에 있는 1947년 출생이 아니고 1937년생이라는 풍문이 사실이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40세에 영국 런던에서 자취를 하면서 공부할 때, 나이가 너무 많아서 걸리는 면이 많았기에 대외적으로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나 싶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선한 거짓이

라도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참고로 정교회의 묘지는 교회 소속으로 안에는 예배당이 있다.

사바가 생전에 하시는 행동은 ‘쪽 팔뚝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예를 들어서 2003년 9월 벨기에 겐트에서 있었던 세계 성전환 학회인 HBIGDA (www.wpath.org) biennial meeting에서 접수비 200유로를 아끼기 위해서 가난한 나라에서 왔고 학회도 하루만 참석할 것이니 접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냐고 묻고



수술대 위의무표정한 그씨는 아직수염이 남아있다. 성전환 수술을 준비하는 이는 페로버치 교수의후계자라도쉬 지노버치, 結華示衆의 미소를보이는 이는마추과 그라다

그 트릭이 성공하자 아주 자랑스러워 하셨던 일이나, 같은 해 9월 EAU에서 스폰서 하는 Trieste에서 있었던 전 이태리 비뇨기과학회에 가서서 Carlo Trombetta 교수에게 처음에는 필자와 같은 방에 묵겠다고 했다가 카를로가 지나가는 예절로 좀 불편하지 않겠냐고 물어보는데 바로 말을 받아서 ‘생각해보니 좀 불편할 거 같다’고 하여서 필자의 방을 따로 만들게 하신 일이라던가, 그러면서도 두당 200유로가 넘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사주시는 것, 태국에 갔을 때 프리샤 교수(Preecha Tiwatranoon)가 잡아 놓은 하얏트 호텔을 마다하고 더 아래 급인 상그리라 호텔을 고집해서 예약을 옮기게 했던 점 등은 세상사는 지혜는 좀 모자란 분이었던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파리나 런던의 비싼 호텔을 감내 못하는 폴란드나 헝가리의 친구들과는 EAU에서 공짜로 주는 호텔 특실을 항상 같이 쓰던 분이였다. 한국에 오셨을 때도 학회 스폰서가 잡아 놓은 롯데 호텔이 처음 들어보는 호텔이름이었는지, 하얏트로 또 방을 옮

기신 기억이 있다. 스폰서가 상당히 난감해 했던 것이 생각난다. 필자도 그분에게 감염이 되었는지, 돈이 없는 것이 ‘쪽 팔리다’는 집착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안 되는 일에 집착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라.

2009년 3월 15일 그분의 조수인 라도쉬(Rados Djinoic)에게서 메일이 왔다. 사바가 아프시다는 것이다. 사바의 병력은 1999년 Advanced Gastric cancer로 수술을 받으시고, 2000년 Retroperitoneal LN dissection과 cholecystectomy를 받으신 병력이 있고, 그 후 immune therapy를 계속하고 계시다가, 8년의 시간이 지난 후 힘이 들어서 치료를 중단하신 것 같다. 계속 소화불량이 있어서 일주일 전 laparotomy를 해보니 carcinomatosis peritonei 때문에 adhesiolysis 정도만 하고 단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Gene therapy가 가능한지 타진한 것이다. 제대로 된 선생님이 사바는 아프시면서도 제자를 공부 시키셨다. 덕분에 mega-dose vitamin therapy라든가, anti-oxidant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였고, 끊었던 담배도 다시 시작하였다. 사람이 줄이 끊기면 긴장을 하듯이, 학회의 유일한 버팀목인 사바가 언제까지 뒤를 봐주실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독립심도 더 생긴 것 같다. 2009년 9월 서둘러서 준비한 살아계실 때의 마지막 학회를 갔는데,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비행기 값을 챙겨서 주시는데 기분이 찼었다. 2010년 4월 4일 부음을 들었다. 부활절에 돌아가셨는데, 축일에 돌아가는 사람은 천국의 문에서 심사 없이 통과라고 한다. 천국에도 하이패스라는 장치를 개발한 정교회는 상상력이 많은 교회이다.



스승을 위한 선물, 마지막이 될 줄 알았기에 소중한순간이었다.

라도쉬가 학회 개막 행사에서 회상한 사바는 모든 것을 다 주는 그런 사람이다. 그것은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남부 그리스 출신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좋은 천성을 지닌 사람들이고, 92세까지 사셨던 정교회 사제였던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렉산더 대왕이 숨을 놓기 전, 누구에게 줄 것 인지를 물으니 답하기를 '제일 강한 자에게 줘라' 라고 했다면 가. 리다가 되는 것은 운 보다는 능력이 앞설 수밖에 없다. 남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가장 뛰어난 능력 중의 하나임이 틀림없다. 필자가 평가하는 사바는 드물게 태어나는 사람이다. 확률적으로 드물게 태어나는 talent를 지닌 사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2004년 조직배양용 스카폴드를 이용한 음경확대에 대한 시도를 할 때 그의 나이는 67세였다. 2005년 Egydio principle인 single relaxing incision을 이용한 Tunical grafting을 시도할 때 그의 나이는 68세였다. 대한민국의 변재상, 브라질의 파울로 에기치오를 초청하여 처음 시도할 때 그는 특유의 낙관적 태도와 수술방에서의 범접할 수 없는 권위로 청중을 사로잡았다.

희망은 감염력이 강하다. 이번 학회는 그런 희망의 감염력을 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러시아의 드미트리리는 Tunical grafting을 통한 real penile lengthening을 penile prosthesis 없이 두 케이스 성공하였다고 귀뜸 해 주었다. 백막에 두개의 Circular incision을 넣었어도 Axial rigidity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조직배양용 스카폴드를 이중으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돌아오는 비행기를 기다리는 공항에서 권순생 선생님과 필자는 이런 역사발전의 숙명적 우연에 대해서 함께 놀라워했고, 그 광경을 같이 목격하고 있다는 것에 행복감을 공유했다. 브라질의 파울로도 이제 그의 권위에 도전할 사람이 없어졌다. 학회를 마친 다음 날, 다시 사바의 무덤에 같이 가게 되었는데 파울로가 너무 슬피 울어서 이미 한번 울어서 눈물이 나지 않는 내가 쑥스러웠다. 그를 처음 만난 2005년 3월을 기억한다. Graft의 bulging과 herniation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던 때라서 공격받던 그의 모습을. 하지만 그 때 끝까지 그를 보호해준 대변자는 사바였고, 5년이 지난 현재는 이번 학회에서만 해도 파울로의 이름은 하



사바의 큰 영애 요바나(Dr. Jovana Urošević)와 남편(교통경찰관) 필자가 페로비치교수 댁에서 하숙을 하는 동안 빵을 많이 사다가 주었다. 베오그라드에서는 밥을 짓지 않기에 아침에 갓 구운 빵을 사다가 주는 것만 할 줄 알면 현모양처이다. 요바나도 7년 전에는 위의 의대생과 비슷한 용모였다.

루에도 10번 이상 다른 사람의 입에서 언급되었다. 필요한 사람은 꼭 만나야 한다. 그런데, 그게 저절로 되는 것은 사바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주는 어떤 성인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학회가 끝이 난 다음 날, 비행기 시간을 기다리는 호텔 로비는 마지막 마음에 담아둔 비밀을 풀어놓는 자리이다. 그 자리에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지 못했던 말들이 술술 나온다. 예를 들어, 이태리 페루자의 알레산드로 지치(prof. Alessandro Zucchi)의 Buccal mucosa를 이용한 tunical grafting은 현재 시점에서 attention을 받는 것은 넌센스가 아니냐고 누가 꼬투리를 잡았다. 그가 없는 자리이기에 가능한 이야기다. 그러자 평소 입이 가벼운 Salvatore Sansalone가 한마디로 정리한다. 그것은 사바가 알레산드로를 아주 좋아했기 때문이다. 살바토레의 한마디로 상황은 정리가 되었다.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필자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고, 사바도 완벽한 능력의 인간은 아니었다. 하지만 좋아하고 아는 사람은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주는 사바의 그런 점 때문에 사바의 유산 중 하나인 많은 친구와의 교류를 필자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필자는 사바의 유산을 독자들과 나누고 싶다. 비행기를 타고 그의 이름으로 개최되는 학회를 참석했다가 그의 무덤을 가셔도 된다. 비행기를 탈시간이 없다면, 바로 지금 그를 방문하시면 된다. 인터넷이 너무 빨리 반응하는 세상에서, 조금 느린 세상으로 방문하시는 것이다.

<http://www.savaperovic.com/sava-perovic-in-memori.htm> 그리고 그에게 물어보시라, "How did you want to die?"

13th Congress of the European
Society for Sexual Medicine **참관**

나의 스페인 가족여행

글 정도린(멘파워비뇨기과 네트워크 천안센터 원장)



2009년 11월에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유럽 성의학학회에서 멘파워비뇨기과 네트워크가 공동 연구한 자료를 발표할 기회에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으로 2010년 학회는 꼭 한번 가보리라 굳게 마음먹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학회에는 유독 같이 갈 동료가 없어 지난해 6월부터 진료 스케줄을 조정하고 혼자 학회에 참석할 준비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막상 혼자 나설 생각을 하니 고민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첫째는 한국에서 인터넷 검색과 출판서적 그리고 여행사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스페인 말라가라는 곳의 현지 정보가 너무나도 부족한 점과 둘째, 짧은 영어실력이 가뜩이나 불안한데 스페인은 영어권 국가가 아닌 에스파냐어를 사용하고 있어 더 더욱 불안했다. 마지막으로 유럽 여름 휴양지를 11월에 가족과 함께 13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가야한다는 것이 성격 탓 인지는 몰라도 고민이 많이 되었다.

네트워크 대표자격으로 참가하는 것인 만큼 “학회에 참가하여

더도 말고 알찬정보 딱 한 가지만 챙겨오자”라는 마음으로 2년 전 터키로 가족과 함께 배낭여행을 갔던 경험을 되살려 항공권, 호텔, 현지 가이드 예약까지 짬짬이 시간을 내어 준비하고 나머지 미흡한 것은 현지에서 해결할 요량으로 11월 14일 파리 경유 바르셀로나로 아내와 아들 2명을 데리고 출발했다.

집에서 아침 일찍 출발해 바르셀로나 숙소에서 저녁에 도착하여 시계를 보니 22시간정도 걸린 것 같았다. 첫 일정은 지친 아이들을 대충 씻기고 다음 날 일정을 기대하며 스페인의 첫날밤을 보냈다.

스페인 여행의 첫날, 바르셀로나 태생의 스페인 대표 건축가 가우디(Antoni Gaudí y Cornet, 1852~1926)의 업적을 둘러 보았다. 파카소박물관도 있었으나 첫날 일정에서 가장 뇌리에 깊숙이 각인된 것은 위대한 건축가 가우디라는 사람이었다.

가우디에 의해 축조된 건축물 중 ‘사그라다 파밀리아(성스러운 가족) 성당’은 1883년부터 현재까지 건축 중인 건축물로 자연을 그대로 옮긴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건축물이다. 외관상의 아

름다움뿐만 아니라 시원시원한 트임과 높은 아치형 천정 그리고 세부적 표정과 동작 등이 묘사된 내부 조형물이 정말 아름다웠다. 가우디는 31세의 나이로 자신의 생애 다하지 못할 건축물을 설계하고, 그가 죽은 이후에도 후대의 건축가들이 이 건물을 계속하여 지어가고 있다는 정신과 의지가 참으로 존경스러웠다.

이외 바르셀로나를 대표하는 것 중 하나가 명문구단 'FC바르셀로나'다. 처음에는 스페인까지 와서 아이들에게 뭔가 기념이 될 만한 것을 사주고 싶어 구장 용품점에서 축구공과 셔츠 등을 사려고 했는데 정말로 운이 좋게 FC바르셀로나와 비야레알의 경기를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저녁 10시에 경기를 시작했다. 10만 명이 관람하는 바르셀로나 구장은 정말로 장관이었다. 메시가 2골을 넣는 장면도 일품이었지만 10만 관중이 홈팀을 응원하는 모습 또한 진귀한 볼거리였다. 뜻하지 않은 일정이었지만 두 아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줄 수 있었다.

둘째 날, 학술대회가 열리는 스페인 남부 말라가에 도착했다. 말라가에서의 숙소는 말라가 파라도르(파라도르:스페인 정부가 운영하는 호텔로 고성, 수도원, 성, 옛날 건축물 등을 개조하여 운영하는 호텔을 말한다)에서 묵기로 했다. 우리가 숙박한 곳은 산 정상 밑에 있는 고성을 개조한 호텔로 바다와 시내를 테라스에서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주로 허니문으로 찾는 곳이어서 그런지 분위기와 경치가 일품이었다.

가족을 현지 가이드에게 맡겨두고 혼자 택시를 타고 첫 해외 학회참석이라는 떨림을 가지고 학술대회장을 찾았다. 도착한 학술대회장 전경은 다소 당황스러웠다. 허허벌판에 큰 건물 하나만 덩그러니 자리 잡고 있고 주변에는 사람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잘못 찾아 왔나 싶었지만 안내표지를 보고 안도할 수 있었다.

학회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고, 600유로(한화 약96만원)의 등록비를 내고 들어갔다. 학회장의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하고 조용하며 그리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부스도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Genital Dermatology, Sexual Transmitted Infection, Women's Sexual Problem 등 실질적인 Conference부터 남성들의 Sexual Disease Prostate ds, Testosterone 등 아주 다양하고 세분화하여 진행된 것이 본 학회의 특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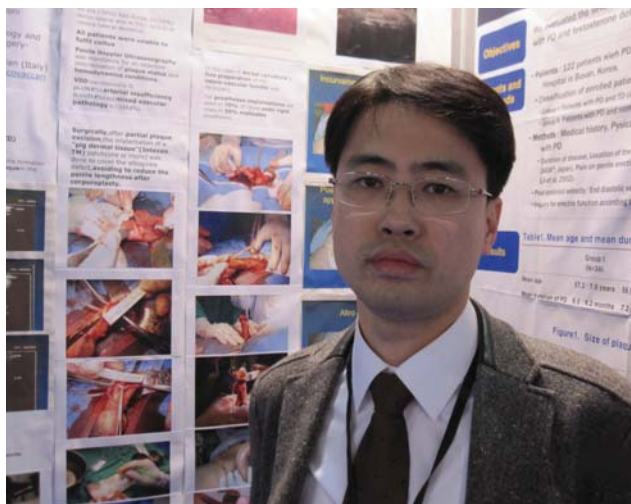
앞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짧은 영어실력 탓에 잘 듣지는 못했지만 슬라이드의 내용을 위주로 보았다. 모두 이해하긴 힘들었으나 세분화되고 특화된 분과별 발표와 내용은 인상적이었다.

어쩌면 아는 것들이 더 많았고 특별하다고 느낀 것은 별로 없었다. 학회는 한국이랑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다. 한국에서 얻는 정보도 정말 빠르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학회 참가비가 약간 아깝지도 했으나, 혼자서도 외국학회를 갈 수 있는 방법과 용기를 얻은 것만으로도 유익했다. 다음에는 좀 더 크고 유익한 학회에 가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다음 날 남부에 위치한 그라나다주의 알람브라 궁전을 갔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중 하나로 현재는 이슬람 건축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과거에는 스페인에 머물던 아랍 군주의 저택이었다고 한다.

비교적 작은 규모이기는 하나 화려한 금박 문양과 붉은 흙벽돌, 술탄들이 놓던 사자의 정원, 아라아베스 안뜰 등을 보면서 귀로만 들던 스페인의 전설적 기타리스트 타레가(Francisco Tarrega Eixea, 1852~1909)의 '알람브라 궁전의 추억'이 그의 슬픈 사랑 이야기와 더불어 알람브라 궁전의 풍경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 내어진 곡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의 짧은 여행과 학회참관은 끝났다.

올해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학회가 열린다. 이번 학회에서는 충실한 여행계획과 보다 발전적인 시간을 만들고 많은 한국 의료진들이 학회에서 발표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농촌체험여행

Natural Country Side

올 봄 가족과 함께 의미있는 여행을 계획하고 싶다면 아련한 흙냄새가 감도는 농촌 체험 마을을 추천한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자녀들에게는 자극적인 도시를 벗어나 자연에서 뛰어 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부모들 또한 지친 심신의 여유를 달랠 수 있어 편안한 주말을 즐길 수 있다.

글 이은혜

한가로운 전원 풍경을 간직한 농촌에서 자연을 체험하는 가족 여행이 인기다. 삭막한 도심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탁 트인 농촌의 자연은 그야말로 천혜의 놀이터와 다름없다. 도심에선 경험해 보지 못했던 다양한 농촌 체험 활동은 물론 가족과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겐 특별한 주말 여행으로 손색없다. 단순히 시골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을 별로 특색 있는 체험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어 원하는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다. 농촌 체험 마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웰촌(www.welchon.com)'을 참고하자.







예절을 배우는 전통 문화 체험, 개실마을

예부터 봄이면 매화며 목련, 벚꽃이 마을 지천으로 피어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골로 불렸던 개실마을은 옛 선비 문화가 고스란히 살아 있는 집성촌이다. 영남 사림학파의 중심인물이었던 점필재 김종직 선생의 후손들이 350년 간 터를 잡고 살아온 곳이다. 세월이 더해감에 따라 더욱 고고한 멋을 풍기는 고택의 운치와 정겨운 돌담길은 개실마을의 자랑이다. 2007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뽑힐 정도로 아름다움을 인정받았다. 아름다운 가옥 중에서도 특유의 기품이 서린 점필재 종택은 안채와 사랑채 등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영남 지역의 전통 한옥 구조의 아름다움을 직접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때문에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개실 마을을 즐겨 찾는다.

마을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널뛰기, 그네타기와 같은 전통놀이를 즐기거나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옛 방식 그대로 마을의 전통 비법이 담긴 한과 만들기과 둘이서 짙은 지어 밀고 당기며 엿을 만드는 체험은 아이들과 어른 모두에게 색다른 체험 활동이다. 이 밖에도 떡 만들기, 칼국수 만들기 등 다양한 음식 만들기 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전문 도예가와 함께 흙으로 곱게 빚어내는

도자기 체험을 할 수 있다. 전통 한옥에서 가족과 함께 지새우는 하룻밤의 숙박 체험 역시 빼 놓을 수 없다. 마을에 위치한 동물농장과 싸움소 사육장은 아이들이 직접 동물을 만져 볼 수 있는 색다른 기회이며, 마을 뒤편에 위치한 화개산 트레킹 코스는 각양각색의 들꽃을 감상하며 거닐 수 있다. 트레킹 중간 중간에 놓인 정자에서 흐르는 땀을 훔치며 탁 트인 풍경을 감상하기도 좋다. 마을 뒤편으로 100여년 된 대나무 숲 역시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다.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잎사귀 소리는 고고한 선비 정신이 전해지는 듯하다. 예절과 전통을 중시하는 마을답게 마을에 위치한 서당 도연재에서 동네 어르신들로부터 전통예절문화를 배울 수도 있다.

주변 관광지로는 대가야 시절의 크고 작은 200여기의 지산동 고분군과 대가야 토기와 금관, 각종 장신구가 전시된 대가야 박물관, 악성 우륵이 제자들과 함께 가야금을 연주했던 우륵박물관을 찾아도 좋겠다. 주산성에서 삼림욕장까지 산책을 즐기거나 고령 5일 장터에 들러 곳곳 한 시골 장터 인심도 덩으로 누릴 수 있다.

위치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합개리 개실마을 **체험 프로그램** 고택 체험 옛 만들기 한과 만들기 전통예절 등 문의 054-956-4022, www.gaesil.net

초록 자연의 향연, 가천 다랭이마을

모내기를 시작하는 봄이 되면, 다랭이 논은 마치 푸른 잔디를 깔아 놓은 듯 진한 초록빛이 일렁인다. 비탈진 산기슭을 가득 메운 108층의 계단식 논이 장관을 연출하는 가천 다랭이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보려는 여행객들이 사시사철 즐겨 찾는 단골 여행지다. 계단식 논에는 재미난 사연이 전해온다. 논에서 일을 하던 한 농부가 일을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논을 세어 보는데 논 하나가 모자라 더란다. 한참을 찾아도 찾을 수 없어 포기하고 집에 가려는데 자신이 내려둔 샷샷 아래 논이 숨겨져 있더라는 이야기다. 손바닥 한 뼘 크기부터 300평이 넘는 논까지 크고 작은 논이 올망졸망 모여 있어 생겨난 일화다. 다랭이 마을의 여름은 파도에 반질반질 다듬어진 몽돌을 만져볼 수 있는 몽돌 해변에서 즐거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마을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위치한 몽돌 해변은 외국인들은 알기 힘든 다랭이 마을의 비경으로 바닷물에 차르르륵 소리를 내며 부딪치는 몽돌 소리가 인상적이다. 몽돌 해변의 깨끗한 바닷물을 감상하고 저녁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면 마을 주변의 학교에서 신나는 게임을 즐기는 시골학교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른 아침 미륵 바위 너머로 붉은 기운을 내뿜으며 솟아오르는 일

출을 감상하고 직접 다랭이 논을 만들며 맛있는 새참까지 맛보는 체험도 인기다. 농촌 체험 중간 다랭이 논에서 바로 내려다보이는 푸른 남해 바다를 감상하며 시원한 바닷바람을 쏘이는 여유도 다랭이 마을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권이다.

마을 체험 후 주변 관광지 여행에 나서는 것도 좋다. 사진작가들이 즐겨 찾는 만큼 깨끗한 자연을 보존하고 있는 남해는 제주 올레길처럼 남해의 문화와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는 바래길이 있다. 총 4개의 코스 중 첫 번째 코스가 다랭이 마을을 중심으로 꾸며진 지깃길로 마을 주변 탐방에 나서기 좋다. 이 밖에도 말발굽길, 고사리로 유명한 고사리밭길, 동대만 진지리길은 코스마다 남해의 비경을 품고있다. 남해는 특히 해안가를 끼고 달리는 드라이브 코스가 유명하다. 남면 평산 마을에서 가천마을을 지나 숙호까지 이르는 약 15km의 남면 해안도로는 한려수도의 청정해역을 한눈에 감상하며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코스로 꼭히니 가족과 함께 꼭 둘러보자.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흥한리 가천 다랭이마을 **체험프로그램** 몽돌 해변 체험, 농사체험, 미륵불 일출, 다랭이 만들기, 추억의 시골학교
문의 010-4590-4642, <http://darangyi.go2vil.org>





대나무 향 가득한 사천 비봉내 마을

중국 무협 영화에나 나올법한 울창한 1만여 평의 대나무 삼림욕장이 자리한 사천 비봉내 마을은 아름다운 대나무 숲으로 유명하다. 마을을 찾는 방문객이 많은 만큼 전문 체험학습 지도사가 내실 있는 체험 교육을 담당한다. 이곳에서는 가족 체험 캠프는 물론 자녀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차려주는 밥상에 익숙한 아이들이 밭에서 직접 상추와 깻잎을 따고 식사 준비를 하는 체험은 재밌는 놀이 같다. 마을 주변 갯벌에서 생태 공부와 체험활동을 하고, 대나무 삼림욕장에서는 숲 해설가의 설명을 들으며 숲을 산책한다. 대나무의 성장부터 종류, 전설과 같은 재미난 이야기까지 직접 보고, 듣고, 만지며 느낄 수 있다. 대나무 피리 만들기 체험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체험 중 하나다. 손수건 염색이나 죽초액 비누 만들기 등 어른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된다. 아토피에 좋은 황토 흙에서 신나게 뒹굴고 장난치는 흙 놀이와 탐스럽게 익어가는 포도 따기 체험도 알차다. 비봉내 마을 인근에 위치한 소담스런 다솔사는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고찰이다. 신라 시대 지증왕때 창건돼 1930년 만해 한용운 선생이 낡은 사찰 건물을 보수하기도 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의 거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다솔사는 역사적 가치가 숨쉬는 곳이다. 순수문학을 이끌었던 소설가 김동리가 한동안 머물며 소설 '등신불'을 지필했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비봉내 마을은 다양한 체험활

동이 진행되기 때문에 미리 홈페이지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일일 체험은 물론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체험 캠프 모두 예약이 필수며, 대나무 삼림욕장만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인터넷 예약이 필수다.

위치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서장리 233-2번지 비봉내마을 **체험프로그램** 대나무숲 체험, 전통문화체험(대나무 피리 만들기, 다솔사 탐방, 대나무 전통놀이), 농사체험(포도따기), 이색체험개울체험, 흙 놀이, 밥 짓기 **문의** 055-854-5111, www.beebong.cokr

향긋한 꽃향기 감도는 산꽃마을

충남 칠갑산에 위치한 꽃마을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꽃향기가 진하게 배어드는 산촌생태마을이다. '산꽃향기'라는 야생화 온실에는 약 5천 여 종의 식물과 10여 종의 새가 전시돼 있으며, 야생화는 직접 구입할 수 있다. 마을에서 체험장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여름이면 하얀 백련이 피어 장관을 이루는 백련지라는 연못이 조성돼 있다.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어 생태학습장으로도 활용된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꽃 사탕 만들기과 미꾸라지 잡기, 소달구지 타고 마을 둘러보기 체험 등이 인기다.

위치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광금리 칠갑산 산꽃마을 **체험프로그램** 꽃사탕 만들기, 나뭇꾼총 만들기, 소달구지 타기 **문의** 011-211-8150, www.sankkot.com

생태계 보고 갯벌 체험, 노을지는 갯마을

농촌과 어촌의 풍경을 동시에 지닌 노을 지는 갯마을은 마을 이름에서도 느껴지듯 아름다운 저녁노을을 감상 할 수 있는 마을이다. 바둑판을 떼어 놓은 듯 펼쳐진 염전에 선 소금을 만들기 위해 흘러야 하는 값진 땀의 소중함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다. 마을의 자랑거리는 뭐니 뭐니 해도 갯벌 체험이다. 트랙터를 개조해 만든 40인승 캠핑카를 타고 바지락, 낙지, 게를 잡기 위해 갯벌을 누빈다. 생태계 보고라 불리는 갯벌에서는 아이들과 어른 모두 바구니에 바지락을 채우는 재미에 신이 난다. 갯벌 체험 외에도 농촌 체험,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마을 주변으로 만리포, 천리포, 백리포 등 이름난 크고 작은 해수욕장이 자리하고 있어 마을 체험 활동을 마치고 휴식을 즐기기에 좋다. 대전, 부산 해수욕장에 이어 서해 3대 해수욕장으로 꼽히는 만리포는 흰 백사장과 맑은 물, 병풍처럼 둘러쳐진 송림이 어우러져 태안해안국립 공원의 비경을 실감케 한다. 천리포 해수욕장 주변으로 수목원이 자리한다.

위치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법산리 노을지는 갯마을 **체험 프로그램** 갯벌체험, 염전체험, 장작들구이 체험, 두부 만들기 **문의** 041-674-5842, www.seavillage.net

동강과 함께 신나는 래프팅 체험, 마하리 어름치 마을

구불구불 이어진 동강이 내려다보이는 평창 마하리의 어름치 마을은 다양한 코스를 질주하는 래프팅과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동강의 생태 환경을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는 만물고기 생태관과 백룡동굴 탐사, 칠족령 트레킹, 야간 물고기 탐사 등 가족들과 함께 주야간 다양한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다. 개인차량을 이용해 어름치 마을을 방문한 경우 백룡동굴 탐사와 동강래프팅, 만물고기 생태관을 둘러보는 패키지를 이용할 수 있다. 주말에 한해 서울에서 출발해 어름치 마을을 왕복하는 버스를 타고 체험 프로그램과 점심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패키지도 인기다. 봉평 허브마을과 대관령 양떼목장도 마을과 가까워 한결음에 둘러 볼 수 있다.

위치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198-7번지 **체험프로그램** 동강래프팅, 백룡동굴탐사, 칠족령 트레킹 **문의** 033-333-6600, www.mahari.kr



내 손 안의 세상이 열린다

Smart World

이제 지식과 정보가 데이터가 아닌 인간에게서 나오는 시대다.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떠오르고 있는 것.

우리가 SNS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온라인 의사소통 사이트인

트위터나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층이 많이 생겨남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혜택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내 손 안에서 열리는 새로운 세상,

보다 스마트한 세계로 안내한다.

글 현운식



얼마 전 한편의 휴대전화 광고가 TV전파를 탔다. 공항에서 한 남자가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결항 공지가 뜬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결항 소식을 인터넷에 올렸고, 즉시 전 세계 친구들의 댓글이 쇄도한다. 시간을 보내는 데 좋은 게임이나 공항 근처 호텔을 알려주는 친구도 있다. 이때 자신도 같은 공항에 있다는 매력적인 외국여성의 댓글이 올라온다. 두리번거리던 그는 그녀를 발견하고 웃음 짓는다.

지나치게 작위적인 설정일까? 실제로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 때 전 세계 공항에 여행객들의 발이 묶였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아무 것도 못하고 며칠 동안이나 공항에 머물며 시간을 허비했다. 그런데 광고 속 주인공은 스마트폰 하나를 챙겼을 뿐인데, 돌발적인 상황도 흥미로운 여행으로 바꿀 수 있었다. 물론 대부분 현실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SNS, 든든한 생활 도우미

광고 속 남자를 지루함에서 구해낸 주인공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 Social Network Service)가 가능한 스마트폰이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니 왠지 어렵게 들린다. 아이폰과 갤럭시S의 열풍으로 스마트폰은 익숙해졌지만, 상대적으로 SNS는 아직까지 생소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싸이월드’가 SNS고, 우리나라가 SNS의 원조 국가라는 사실을 알면 이야기가 다르다. 아직까지 국내 사용자가 많지는 않지만, 대표적인 SNS ‘트위터’와 ‘페이스북’이라는 이름을 누구나 한두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국내에서도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가입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영화배우 송새벽의 유머 광고로 일반인에게도 유명해진 ‘미투데이’는 네이버가 전 사적 차원에서 밀고 있는 토종 SNS다.

뭔가 감이 잡힐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면 SNS의 정확한 정의는 뭘까? 온라인상에서 친구·선호배·동료 등 지인과의 인간관계를 강화하고, 잘 모르는 불특정 타인과의 새로운 관계를 쌓으며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쉽게 얘기해서, 실생활의 인간관계를 온라인으로 옮겨온 서비스라고 요약할 수 있다. 송새벽의 미투데이 광고가 집단지성의 핵심을 보여준다.

짜사랑 유리 씨가 떠나가지만 송새벽은 어떻게 할지 모른다. 보아하니 고백도 못 한 상태. 이 내용을 올려놓으니 미친(미투데이 친구)이 기차 유리창에다 하트를 그리라고 한다. 엉뚱하지만 기발하고 확실한 사랑고백이다. 이처럼 SNS는 지구촌 수백 수천 명 친구와 늘 함께 할 수 있기에 든든하다. 바야흐로 지식과 정보가 데이터가 아닌 인간에게서 나오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어떻게 입문하면 좋을까? SNS

“요즘은 왜 이렇게 바뀌는 게 많아요? 스마트폰, 태블릿 PC,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따라가지를 못 하겠어요.” 멀리 어답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늘어놓는 불평이다.

과거 하드디스크도 없던 XT 컴퓨터에서 최근에는 테라바이트 하드와 엄청나게 똑똑한 머리(CPU)를 가진 고성능 컴퓨터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렇게 발전한 컴퓨터 기술만큼 사용하기에 어려워졌을까?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과거 운영체제인 도스(DOS)는 일일이 명령어를 입력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마우스 클릭만 할 줄 알면 컴퓨터를 쓸 수 있다. ‘복치기 박치기’만 하면 된다는 비트박스처럼 쉽다.

이런 문명의 이기들은 어떻게 하면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고민이다. 사용자와 가입자가 늘어야 돈을 벌 수 있지 않은가? 무조건 쉬워야 한다. 새로 나오는 어떤 것이든 점점 쉬워지는 거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PC를 쓸 줄 아는 사람이라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는 더 쉽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SNS 가입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물론 트위터, 페이스북은 미국에서 만든 SNS라 가입화면부터 상당히 낯설다. 하지만 낯설음에 굴하지 않아야 한다. 대부분 그렇듯,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고 입력하라는 것들을 하나씩 입력하면 그걸로 끝이다.

다시 말하지만, SNS 입문의 핵심은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그냥 하라는 것이다. 140자로 자기 생각을 정리한다는 사실이 어렵지, 트위터에 가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물론 잘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SNS를 전문가 수준으로 제대로 활용하고 싶은 사람은 책 한 권 사서 공부하면 된다.

140글자의 소통, 트위터



트위터는 영단어 140자 이내의 단문으로 전 세계 이용자와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다. 미니홈피나 블로그가 자신의 생

각이나 일, 혹은 어떤 주제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이라면 트위터는 다른 사람과 짧은 글로 소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트위터가 여러 기능이 있지만 메신저 기능도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재 트위터 본사에서는 한글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아서 영어, 일본어 등 5개 국어 가운데 하나를 사용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twt.kr.com을 사용하면 한글로 이용할 수 있어서 언어의 장벽은 없다고 봐도 좋다.

그런데 트위터에서 특히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팔로우, 팔로어다. 쉽게 얘기하면 팔로우는 어떤 사람이 쓰는 글을 읽겠다는 말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나 박경철 시골의사를 팔로우하면 그들이 글을 썼을 때 내 트위터 화면에 뜬다. 마치 신문을 구독하는 것과 비슷하다. 싸이월드와는 달리 일촌신청을 수락하는 과정이 없어서, 내가 원하면 누구의 글이든 무조건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단 예외적으로 상대가 언팔로우를 하면 볼 수 없는데, 자신의 글을 특정한 사람이 읽을 수 없도록 하는 차단기능이다.

팔로어는 팔로우하는 사람들로 자신이 글을 썼을 때 읽겠다는 사람들을 말한다. 더 많은 세상을 접하고자 한다면 꾸준한 활동과 홍보로 최대한 팔로어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는 관심 있는 분야에서 팔로어가 많은 사람들을 검색해서 팔로우하는 방법도 있다.

전 세계 5억 명의 예비 친구, 페이스북



2010년 7월, 친구들과 대화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SNS 페이스북의 가입자가 5억 명을 돌파했다. 많은 SNS가 있

지만 지구촌을 대상으로 가장 열렬한 호응을 받는 SNS가 바로 페이스북이다.

무엇이 페이스북을 유명하게 만들었을까? 한글사용이 가능한 페이스북은 가입할 때 자신의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한다. 개인정보에 민감한 사용자라면 주춤할 수도 있는데, 이메일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 검색을 통해, 이메일을 주고받았던 사람 가운데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리스트업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친구 맺을 것인지를 묻는다. 이처럼 페이스북은 웹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움직인다. 유튜브, 구글, 트위터 등등 어떤 웹사이트든지 단 한 줄의 코드만 붙이면 페이스북과 데이터가 상호 연동되도록 할 예정이다. 진정한 개방형이라 할 수 있는데, 페이스북으로 대동단결이다.

페이스북은 자체적으로 많은 기능이 있지만, 응용프로그램도 속속 개발되어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 쪽지와 채팅, 정보와 사진 자유로운 공유는 물론, 친구를 이벤트에 초청할 수도 있고, 다른 나라 친구를 사귀고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소셜 커머스 분야에서도 페이스북에 주목하고 있다.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친구에게 공유가 되고 입소문 마케팅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을 잘 이용한다면 친구들로부터, 기업들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물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친구를 많이 확보하고 그들과 친분을 이어가는 과정이 숙제다.

메이드 인 코리아, 미투데이



'아이러브스쿨', '싸이월드' 등 SNS 원조국가라

는 자부심을 가진 대한민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래서 한국포탈 대표주자 네이버가 절치부심하고 SNS 시장으로 뛰어들었는데, 그 결과물이 미투데이이다. 페이스북의 좋은 점을 많이 미투(Me too)한 미투데이는 한국형 SNS로 가치가 있다. 우리나라의 페이스북 가입자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친구를 사귀는데 가장 수월한 곳은 어쩌면 미투데이일 수 있다. 그래서인지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가입자가 많다.

세 곳 모두 가입해도 좋고, 하나만 가입해도 좋다. 꾸준한 소셜 네트워크 관리와 활용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스마트한 일상이 따라올 것이다.

가족愛로 뭉친

비뇨기과 경기 남부모임

대한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소모임 중 경기 남부지역 모임은 가족 같은 분위기로 살맛나는 ‘소통의 장’을 만들고 있어 주목을 끈다. 특유의 친화력과 화합으로 회원들을 챙기며, 의료정보를 나누는 남부모임을 찾았다.

글 이동림 사진 이주혁 진행 임운정



저녁 7시 30분, 화성의 한 식당에서는 비뇨기과개원의 선후배 회원들이 모여 서로의 안부를 챙기며 소소한 일상생활에서부터 진료실에서 겪었던 일까지 정보를 공유하느라 분주하다. 경기 남부지역 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모임(이하 남부모임)은 지난 2004년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병원이 확충, 증설됨에 따라 오산·송탄·화성지역 소수의 회원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의기투합해 만든 모임.

회원들은 매주 셋째 주 수요일 저녁, 정기적으로 모여 서로간의 친목을 다진다. 회원들은 대부분 40대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열정과 패기로 가득하다. 현재 남부모임에 소속된 회원은 18명.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어느 개원의 모임에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화기애애하다.

“모임 초기 당시 개원의들의 친목과 회원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하며 환자의 건강한 삶을 되찾아주고자 뜻을 함께한 만남이 어느덧 7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이날 남부모임에서 만난 정관규 회장은 감회가 더욱 새롭기만 하다.

그는 올해로 3년째 회장직을 맡으면서 회원들의 친화력과 화합을 다지는데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일단 회원들의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그의 지론이기 때문에 그동안 대외 활동보다는 내실을 다지는데 주력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비롯해 계획했던 일들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뜻 깊고 보람 있는 일들을 해볼 생각이다.

개원의 활성화 초석으로

친화력으로 뭉친 이들에게 최대 화제꺼리는 개원시장의 불황이다. 이는 정부에서 보험과 세금으로 의사들을 압박하고 있어 모두가 공감하는 이슈다.

“개원의 시장이 활발해 졌으면 좋겠습니다. 회원들이 병원운영을 하다보면 부딪치는 일이 많아요.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법적 문제까지 고민하다보면 스스로 자괴감과 우울증에 빠져드는 일도 다반사죠. 그럴수록 이 모임이 회원들의 고민을 함께 들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날 참석한 한 회원의 말이다.

한편 모임에서는 윤종목 회원이 탈모란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강의는 탈모의 최신 경향과 여성탈모에 대해 열띤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현재 개원시장에 불고 있는 불황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 이들은 비뇨기과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질환에 대한 정보교환도 소홀히하지 않는 것이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교류문제도 이날의 이슈거리였다. 대부분의 개원의 웹사이트는 회원들의 정보교환과 교류가 활발한 반면, 비뇨기과는 그렇지 못하다는 아쉬움 때문. 이들은 지금까지 제한적으로 고민을 이야기하고 의견을 교환했다면, 올해부터는 활동영역을 더욱 넓히고, 회원들의 잦은 교류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밝은 미래를 위한 회원들의 생각이 비뇨기과의 앞날에 튼튼한 밑거름이 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한번 맺은 인연을 천명이라 생각하며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를 위하는 남부모임 비뇨기과 회원들. 끈끈한 가족애로 소통하는 이들이 빛나는 이유다.

경기 남부(오산·송탄·화성)모임 소속 회원

회장 정관규(한솔비뇨기과) 총무 류사택(병점 본비뇨기과)

회원 윤종목(오산 보건소)/김재형(오산비뇨기과)/정한섭(정비뇨기과)/이상봉(송탄 본비뇨기과)/남봉현(늘 푸른 비뇨기과)/김성연(베스탑 비뇨기과)/이태경(맨파워비뇨기과)/신대진(하나비뇨기과)/박성철, 정용래(하인베상의원)/정순만(조이비뇨기과)/심정현(봉담 수비뇨기과)/김성진(안중 수비뇨기과)/김진현(토마토의원)/이경준, 강군현(오산 한국병원 비뇨기과)

대한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News



상임이사회 및 전체이사회

지난 1월 24일, 2월 21일 상임이사회와 전체이사회를 개최하고
예산(안) 심의 및 춘계학술대회 세부사항 등 주요 안건 토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2011년 각 부별 사업계획 및 회무 일정에 대해 임원진의 의견을 수렴했다.

대한비뇨기과학회 간담회

지난 12월 10일 대한비뇨기과학회 신임 임원진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학회에서는 정문기 회장과 천준
총무 외 본회에서는 정병동, 임일성 부회장을 비롯해 양측
에서 다수의 임원진이 참석하여 비뇨기과 현안 및 비뇨기
과 발전을 위하여 합심하여 노력해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회원 학술활동비 지원

본회 소속 회원의 학술활동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2010년
새롭게 마련된 회원 학술활동비 지원 규정에 따라 8명의
회원이 지원금을 수령했다. 학술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회
원 1인당 연 1회, 1편을 지원한다.

임원진의 활발한 활동 기대

비뇨기과학회-비뇨기개원협의회로 이루어진 학회 각 부별 위원회, 고령사회 대비 특별위원회, 대한노인의학회 및 사단법인 전국글로벌의료관광협회 등에서 본회 임원진이 참여하여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비개협 보험위원회 확대 개편

ESWL 수가 시수를 계기로 발족된 보험 특별위원회를 ‘비개협보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인원을 확대하여 광범위한 대처 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위료·상대가치 등 현실과 동떨어진 저수가 보험체계에 대해 비뇨기과학회 보험위원회와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평상시에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다 능동적인 해법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향후 점진적으로 이런 위원회를 활성화 해 비뇨기과개원협의회의의 요체로 만들어 나아가자고 뜻을 모았다.

향후 일정

2011 춘계학술대회

-3월 27일(일), JW메리어트호텔

“배뇨장애 요실금분야에서의 개원가 진료, Urogenital US, Anesthesia for urogenital surgery, Tip and Trics이라는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 날 무료 법률, 노무 상담코너도 준비된다.

임원 춘계 워크샵

-5월, 장소 미정

비뇨기과개원협의회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로 하나된 임원 상호간의 상견례 겸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될 예정이다.

LETTER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립니다!

의견을 보내주세요. <유로진>은 회원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보내주실 곳: FAX) 0505-507-5700
(대한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사무국)
E-MAIL) urologist@paran.com
nestes2@hanmail.net

1. 다음호 <유로진>에서 다뤘으면 하는 기사가 있으신가요?

.....

.....

.....

.....

.....

2. <유로진>에서 꼭 만나보고 싶은 회원을 추천해주세요.

.....

.....

.....

.....

.....

3. 진료실에서 겪은 에피소드나 여행기 등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

.....

.....

.....

.....

.....

.....

.....

.....

EVENT

<유로진> 독자선물

- Gift 1. 부산롯데호텔 숙박권 1명
Gift 2. 파카 88리알토 매트블랙 만년필 2명
Gift 3. 천호통마늘진액 1명



소중한 의견 고맙습니다. 의견이나 사연을 보내주신 회원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이름

병원명

연락처

주소 -